OCT 20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57 1982년 10월 19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October 19,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중공조종사 한국귀순

대만, 2백만불로 망명 권유

(서울=외신종합)중공 공군소속 조종사 1명이 16일 미그전투기와 함께 중공을 탈출, 한국에 귀순했다.

대만정부는 귀순조종사가 비행기와 함께 대만에 돌아오면 상금으로 2백만 달러 이상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익명의 이 조종사는 중공 공군소령이며 착륙장소는 서울 남쪽 16킬로 지점인 한국군 기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해 한국정부와 중공측은 공식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미그기 조종사의 탈출로 중공측은 몹시 당황한 빛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탈출했다는 사실은 중공정부에 불만이 있다는 것과 아울러 중공의 레이다방어망이 허술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만정부는 중공조종사의 한국착륙이 공식적으로 망명으로 확정되면 조종사와 타고온 미그기를 대만으로 송환하도록 한국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대만관리가 말했다.

한국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공조종사의 행방은 17일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보조금신청 서둘러라"

12월말까지 기초공사 끝내야

건축계획중인 가옥의 매입자를 위한 연방정부의 $3,000 주택보조금의 신청 마감일이 12월말이지만 실제 건축업자들이 시공허가를 받는데 드는 시간을 고려, 보조금신청을 11월초까지로 서둘러야 한다.

건축업 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꾀하려는 정부의 집장만 보조금에는 온타리오주 정부의 $5,000 무이자융자와 연방정부의 $3,000 무상지급의 두가지가 있는데 이 두가지 재정지원의 규정이 달라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헤론·홈즈회사의 헤론씨가 15일 말했다.

온타리오주 정부의 $5,000 무이자융자는 신축가옥을 처음으로 매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집값은 각 지역마다 한계대상액이 달라진다. (메트로토론토 지역은 $115,000이하의 집의 경우만 해당)

그러나 연방정부의 $3,000 무상보조금은 $15만이하의 새 집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헤론씨는 그러나 비록 이런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집을 사기로 계약을 한 시기가 너무 늦어 12월말 마감전에 연방정부에 신청을 못하면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예컨대 집을 사기로 계약이 된 뒤 건축업자가 건축허가를 얻는데는 4~5주가 걸리며, 허가가 나와야 기초공사가착수되며, 연방정부의 $3,000은 기초공사가 시작되야만 지급된다.

그러므로 12월에 계약한 사람들은 기초공사가 시작되기까지 너무 시일이 급박하다.

또한 12월에는 연말 공휴일이 2주간이나 끼어있고 마지막에 서두르는 사람들이 밀려 자칫 기한을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 적어도 11월초까지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3,000 지급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독립기념관 모금

1차로 $2,120 송금

한국의 독립기념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국내외 모금에 호응, 한국일보 토론토지사는 10월13일 현재 13명으로부터 $2,120을 모금했다.(그중 최원보씨는 $100 약정)

본지는 이상의 금액을 회사자명단과 함께 15일 서울본사로 송금했다.

모금은 앞으로도 계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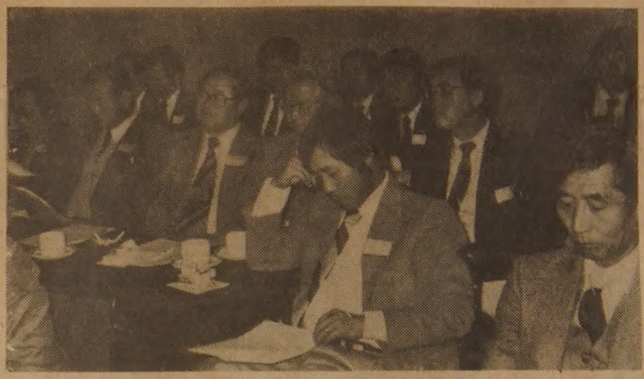
이제까지의 건립기금 기탁자는 아래와 같다.

최등용	$1,000
박대인	$200
원××	$100
박진근	$100
김승택	$100
배용빈	$100
박형배	$100
박문배	$100
박 용	$100
최원보	$100(약정)
김충헌	$50
최성태	$50
이상온	$20
계	$2,120

◆프로야구 제일 쇼스톱이라고 불리우는 카디널스의 오지·스미스가 공중을 날아 볼을 잡았으나 밀워키의 얀트는 이미 세입프.(관계기사 2면)

상공협회 출범

◆새로 탄생한 상공협회의 김완수 부회장, 정창헌 부회장, 조병역 회장, 김무호 이사장이 축배를 들고 있다.(좌로부터)


◆실협 간부진들이 참관했으나 별 마찰은 없었다.

18개업종 28명 발기인 모여

실협측도 참관, 회장에 조병역

「온타리오한인상공인협회」가 난항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탄생했다.

지난 16일 토론토시내 트라이엄프·쉐라톤호텔에 모인 28명의 교포실업가들은 예정대로 상공이협회를 출범시키고 조병역(42)(쿠진스·레스토랑 경영)씨를 회장으로 정창헌, 김완수씨를 부회장으로 발기인전원을 이사진으로 포함시키고, 김무호(고려보석)씨를초대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발기총회에서는 오원균(타이시티 경영), 배운산(도매업)씨, 홍진표(간판업)씨등이 실협과 문제를 먼저 토의, 교민사회의 분열같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자고 제의했으나 김완수의장을 중심으로한 주류측이 총회를 끝내고 이 문제를 기타사항으로 맨 나중에 토의하자고 제의, 14:11로 오원균씨 안을 부결시킨뒤 일사천리로 정관통과, 회장선출, 이사장선출등을 끝냈다.

옵서버로 참가했던 실협간부진 이 회장한 가운데 조병역회장을 중심으로 회장, 이사장 선출을 끝낸 상협멤버들은 김완수 임시의장(부회장, 발기준비위원장)의 실협과의 협상과정 설명을 들었다.

김부회장은 14일밤 실협간부들과 만나 "실협의 기치아래협의 단결해나간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했으나 그 당시는 준비위원장에 불과했으므로 이 합의서는 구속력이 없다고 선언하고, 이 문제는 총회에서 결정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공인협회는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김무호 이사장, 김정운(아카데미 TV), 김창범(신세계여행사), 함태호(공업), 함병섭(동양한의원)씨등의 5인대표를 뽑았다.

조병역회장은 18일 "이제 협회는 탄생했다. 신규회원 문제와 집행부서 책임자등을 하나 하나 해결하겠다"면서 "실협과의 마찰은 5인대표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선겸 실협회장은 "교민사회의 분열같은 인상을 주어 적극 저지했었으나 이제는 할 수 없다. 앞으로의 대책은 이사회와 오는 22일 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은 발기인으로 내정된 것으로 애초에 알려졌으나 사실은 승낙한 적이 없으며, 다만 발기전에 제의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환은행의 이수신전무는 18일 "은행도 교민상대 업소이나 한국기관이므로 "교민단체에 가입할 수는 없다"고 상협과 관계를 부인했다. 이에대해 조병역회장은 "은행업도 회원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외환은행이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할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신문사측도 처음에는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발기인명단에는 빠져있다.

상공인협회 발기인 28명을 직종별로 분류하면 18개 업종을 망라하며 정비업이 5개소로 가장 많다.

상공협회측에서 발표한 발기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접수순)

김무호(보석업)
이상수(간판업)
홍진표(간판업)
김완수(인쇄업)
함태호(공업)
조병역(식당업)
송대헌(정비업)
송창섭(정비업)
연상만(건축업)
김용환(정비업)
김석환(화실)
임윤식(인쇄업)
정창헌(정비업)
조성호(화실)
김창범(여행사)
김정운(TV상)
정필주(회계업)
배운산(도매업)
박주삼(태권도장경영)
오현구(냉동기수리업)
전기덕(정비업)
이윤상(그릇판매)
장영채
황용현(부동산업)
김흥량(보험업)
오원균(양품업)
김인태
함병섭(한약방)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김상욱
CANADA SAVINGS BOND는 언제나 현금으로 찾을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대상이 된다. 이는 매년 가을에 한번씩 발행되며, 작년에는 주문이 폭주하여 마감일을 앞당겼읍니다. 저희는 이의 구입에 일체의 수수료를 부가하지 않고 모든 문의에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밍크털공장 직매장 불루아에 개점>
개점전시회및 특별대할인세일

◎공장도 가격으로 교포들께 봉사코저 불루어상가에 open케 되었으니 많이 구경오시고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점일 : 10월20일(수) 12 : 00
캐나다밍크센타
주소 : 712 Bloor St. W. (제일식품 아래층 아리랑하우스식당 옆)
☎ : 535-7878, 532-8662
류동훈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0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82월드시리즈 5차전
일요일의 승리는 밀워키로

밀워키·브루어스는 3주 연속으로 일요일마다 승리를 기록, 82년 월드시리즈 쟁패에 한발 다가섰다.

17일 밀워키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브루어스는 센트루이스를 6:4로 물리쳐 3승2패로 시리즈를 리드하면서 우승에 1승을 남겨놓았다.

2주전 일요일에 아메리칸리그 동부조 수위결정전에서 볼티모어·오리온스를 이겨 아메리카챔피온시리즈에 진출한 밀워키는 1주후 일요일인 10일에 다시 캘리포니아·앤젤스를 물리치고 아메리칸리그 챔피온이 됐었다.

지금까지 제5차전에서 이겨 3승2패를 기록한 30개 팀중 26개팀이 월드시리즈를 제패했었다.

그러나 월드시리즈는 19일(8:20pm)부터는 세인트루이스로 옮겨 개최돼 세인트루이스가 홈게임의 잇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우승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외국유학생 격감
「온」주대학등록금 3배로 높여

금년 가을학기에 온타리오주내 각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학생의 수는 작년의 7천여명보다 약 60%가 줄은 2,800명에 불과했다.

이같은 감소는 온타리오주가 지난2월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을 $1,612 내지 $1,950에서 $2,700 내지 $4,050으로 거의 3배나 올린 데 기인한다.

토론토의 인터내셔널 칼리지 학장인 존·로버츠씨는 미국의 경우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비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보다 더 싼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주 대학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부과하는 등록금은 대개 년 $1,100 정도(U of T의 경우)이다.

온타리오주의 대학등록금이 비싸지자 외국 유학생들은 미국이나 캐나다의 다른 주의 대학들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경찰 총탄에 1명 숨지자
폴랜드인의 분노 점점 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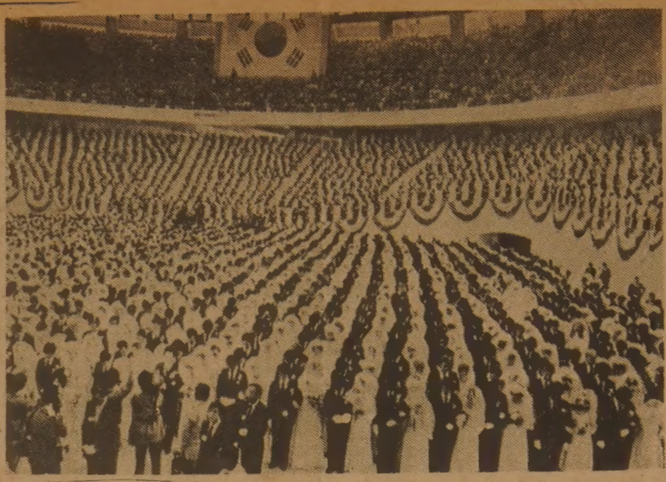
(바르샤바) 솔리대리티등 노조복권을 요구하며 반정부데모를 벌여온 폴랜드 노동자들중 1명이 경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관영 PAP 통신은 14일 아침 크라코우교외 노와·후타의 철강기술자 보드간·블로식(20)군이 사복경찰의 총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 진 뒤 숨졌다고 발표했다.

폴랜드 당국이 공식 인정한 첫 사망자 블로식군이 외에 12일밤 그댄스크에서도 2명의 노동자가 숨졌다는 미확인보도가 무선전신으로 전해졌다.

한편 폴랜드 공산당 기관지는 새로 번지는 데모로 계엄령 철폐시기를 미루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지난주 중의 데모로 체포된 수는 그댄스크와 우로클로에서만도 각각 148명과 170명에 달했다.



▲사상최대의 5천8백쌍 합동 결혼식-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통일교도의 결혼식.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아프리카등 세계83개국의 신랑신부가 문선명교주의 주례로 식을 치르고있다.

택시요금 인상
$1.20+300m당 20¢

메트로 의회는 15일 택시요금을 10.86% 인상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 인상안은 즉각 발효된다.

새 인상안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1.10에서 $1.20로 10센트 올랐으며 매 333m마다 20센트이던 주행요금이 300m당 20센트로 조정되었다.

충치 위험율 높아져
메트로수도물 불소처리 중단

메트로·토론토의 수도물에 지난 3개월전부터 불소가 첨가되고 있지 않으며 치과전문가들은 이때문에 메트로의 40만 어린이들의 충치 위험이 현재 격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메트로 수도물에 불소를 첨가하지 않는 이유는 이 충치예방 화학물공급이 북미에서 딸리고 있기 때문이며 아마도 내년 봄에 가서나 수도물에 다시 불소가 첨가될 것같다.

온타리오 불소연락위원회 회장인 샘·그렌박사는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불화물첨가가 재개될 때까지 부모들은 불소정제나 용액(약방에서 1병에 5달러)을 구입해서 자녀들에게 일주일에 한번씩 치아를 헹구도록 할것을 당부했다.

그렌박사는 이러한 방법외에도 아이들에게 불소함유 치약을 사용하게 한다든지 생선과 같은 불소가 많이 함유된 음식물을 먹이는 것도 충치예방에 좋다고 말했다.

메트로·토론토 수도국은 금년12월에 수도물 불소처리를 재개하려고 계획했으나 불소공급회사인 토론토의 CIL은 빨라야 내년 4월경에나 공급을 재개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애틀란타의 병방지센타는 현재의 불소부족 상태가 내년 한해동안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서 1971년부터 1980년도 사이에 어린이 40,000명을 대상으로 연구조사한 바에 의하면 식수에 불소첨가로 충치를 33%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년동안 메트로·토론토의 수도물에 불소가 첨가되어왔다.

메트로수도국 부국장인 존·칸도프씨는 과거에는 1백만대1 정도로 불소를 포함시켜 왔는데 지금은 1백만대 0.14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불소는 인산비료생산의 부산물로서 최근 불경기의 심화로 비료판매가 크게 줄어들자, 그 결과로 불소생산이 격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로야구 MVP
OB투수 박철순

(서울=본사전화)

프로야구 첫시즌 최우수선수로 OB베어즈 투수 박철순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놓고 투수부문 3관왕 박철순(OB)과 타격부문 2관왕(수위타자·최다출루·MBC) 백인천이 경합을 벌인끝에 박철순이 영광을 차지, 승용차 1대를 부상으로 받았다.

부문별 개인상시상식은 14일밤 전기리그 잔여경기 삼성-MBC전에 이어 서울운동장에서 베풀어졌다.

개막전에서 만루홈런을 때린 이종도(MBC)는 특별상으로 역시 승용차를 상품으로 받았다. MBC청룡의 감독겸 지명타자 백인천은 이날 마지막게임에서 2개의 안타를 추가, 2백50타수 1백3안타, 타율 4할1푼2리의 높은 타율로 타자로서 최고의 영예인 수위타자 타이틀을 획득하는 한편 출루율 0.502로 최고출루율상도 받았다.

백인천은 또한 최우수지명타자로 뽑혔으며 황규봉(삼성)은 최우수 구원투수가 되었다.

◆베스트 9

(지명타자 포함)

▲투 수=박철순(OB)
▲포 수=이만수(삼성)
▲1루수 =김봉연(해태)
▲2루수 =구천서(OB)
▲3루수 =이광은(MBC)
▲유격수=오대석(삼성)
▲외야수=이종도(MBC),장태수(삼성),윤동균(OB)
▲지명타자=백인천(MBC)

〈특별기고〉

"I am O.K. you are O.K."

홍신웅목사(한인침례교회)

지난 8월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께서 캐나다를 방문하셨을때 이곳 교포사회에서는 대체로 두가지 반응이 일어났다.

그하나는 대통령을 범교민적으로 환영하자는 것이고 다른하나는 반대시위를 하자는 것이었다.

환영하자는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환영하는것이 우리교민과 조국의 이익을 위한 길이라 믿는다. 조국의 대통령을 환영하는것이 교포들로서 예의를 표하는 것이요, 범 교민적으로 환영함으로 단결된 교포들의 힘을 과시하는것이요, 그분의 위신을 세워줌으로 조국의 이익과 교포들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양국 수뇌가 앉아서 회담을 할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로 생각된다.

반대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들 역시 이 기회에 반대시위를 벌여서 대통령을 하야 하게하고 억눌린 인권을 회복시키자는 좋은 의도에서 그와같은 결론을 내린것이다.

캐나다에 살고있는 교포들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고 교포들의 지위향상을 바라는 마음이 같은 것이다. 문제는 나라를 사랑하는 생각과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 차이점 때문에 교포사회가 둘로 맞서서 이쪽은 저쪽을 마치 한국정부의 끄나풀이나 시녀 취급을 하면서 공박을 해대고 저쪽은 이쪽을 마치 역적이나 공산당 취급을 하며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다.

◆홍신웅목사

정신분석학자이며 정신과 의사인 토마스·해리스(Thomas A. Harris)는 사람이 타인을 대하는 4가지 태도를 분석하였는데

1) I am not O.K, you are O.K. (나는 옳지않고 너는 옳다.)
2) I am not O.K, you are not O.K.(나도 옳지않고 너도 옳지않다.)
3) I am O.K, you are not O.K. (나는 옳고 너는 옳지않다.)
4) I am O.K, you are O.K.(나도 옳고 너도 옳다.)

이 네가지 태도 가운데서 3번째태도가 가장 위험하고 타인에게 패를 끼치는 것이다. 자기자신은 돌이켜 볼줄도 모르고 항상 자기만 옳고 상대방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자세이다.

토론토에 사는 우리 교포가 내가 하는일은 항상 옳고 당신이 하는일은 틀려 먹었다는 사고방식(I am O.K, you are not O.K.)으로 살아간다면 교포사회의 융화 단결은 묘연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교포사회의 단체에서 이와같은 일이 얼마나 많은가? 나와 같은 방법으로 조국을 사랑해야 하고 한인회를 사랑해야지 당신같은 사람의 사고방식은 틀려먹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결국 자기와 같이 뜻과 행동을 취하지 않는 사람은 사정없이 헐뜯고 짓밟아 버리려하는것이다.

삼만여명의 교포가 하나에서 열가지 뜻과 행동을 다같이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각자의 인생관과 생활철학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가운데서 공통점을 찾아서 그것을 통하여 한데 뭉쳐서 협조하고 전진해 나갈때 한인 사회의 장래는 밝게 빛날것이다. 우리각자 각자가 I am O.K, you are O.K.의 태도를 취할때 교포간의 반목이 해소될 수 있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것이다.

내가 생각하는일이 옳은 일이지만 상대방의 생각도 일리가 있다는 넓은 마음을 가질때 화목한 한인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고 2세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은 만나기만 하면 다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나기만 하면 사랑의 교제를 하며 상부상조 하는 자랑스런 부모님들이라는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것이다.

신호무시한 횡단자에 경고
운전수 입건 안 돼

신호를 무시한 횡단자를 치여 숨지게 했을 경우에는 입건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생겼다.

메트로경찰은 17일 레슬리스트릿과 핀치 북쪽인 플랜츠맨·블루바드 코너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대각선으로 가로 질러 가던 노스욕의 제임즈·고든·보즈(16)군이 커브길에서 북행하던 승용차에 치어 숨졌으나 그 후 신호등이었으므로 운전수는 입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즈군은 사고직후 노스욕 제너럴병원에 도착하자 말자 심한 머리및 복부 부상으로 숨졌다.

보즈군은 메트로·토론토에서는 금년들어 62명째 사망자로 기록된다.

호박만큼 부푼「할로윈」童心

▲호박이 익어가는 10월-할로윈으로 마무리되는 10월의 들판에는 밝은 주황색 호박이 곳곳에 널려있다. 4살짜리 제프군이 기어오른 이거대한 호박의 무게는 자그만치 3백5파운드. 세계호박챔피언 컨테스트용으로 아저씨가 1백50일간이나 정성들여 키운것이지만 제프는 이 호박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할로윈의 호박등 잭-오-랜턴을 만들궁리가 한창이다. 〈살리나스, 캘리포녀-AP〉

▲가수이자 창녀인 로라의 관능미 앞에선 도덕도 초개처럼 무너진다.

새 映画

로 라
탕녀 유혹에 수십년쌓아올린 道徳律이…

지난 6월 36세로 요절한 독일의 명감독 라이너·베르너·화스빈더의 「Lola」는 그 질탕한 분위기에서 음탕한 몸매로 노래를 부르는 로라역의 바바라·주코바의 선정적이고도 고혹적인 미 외에는 별로 볼 것이 없는 영화다. 그리고 부패의 화신이면서도 휴매니스트인 슈커르트(마리오·아돌프)의 연기가 볼만하며,

무대는 50년대 한창 부흥에 안간힘을 쓰는 서독의 작은 도시 코부르크, 시장을 비롯 유일한 건축업자인 슈커르트 등 도시관리들이 모두 썩을대로 썩고 그것이 당연한 생활이된 이 도시에 모랄리스트이고 청렴결백한 중년 홀아비인 건축커미셔너 폰·봄(아민·밀러-슈탈)이 부임해온다.

로라는 가난과 천대속에서도 그 관능적인 아름다움으로 사창가겸 카바레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슈커르트의 정부로 때론 자포자기적인 분노를 터트리나 천성적인 탕녀, 그러나 이 탕녀는 지적이고 눈부시게 고와 다시는 빠져 나올 수 없는 파멸의 늪인 줄 알면서도 남자들은 무기력하게 그녀에게 몰입하고만다.

모랄리스트에겐 절망지않는다는 말에 내기하는 심정으로 로라는 폰·봄을 유혹하고 이 모랄리스트는 단 한번의 시선에 그의 수십년간 쌓아온 도덕률을 한없는 진흙굴에 헐어버리고 만다.

폰·봄이 한 밤에 바이얼린을 혼자 켜며 로라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다 최면에 걸린 자처럼 음란의 집으로 찾아가는 장면은 여자의 마력앞에서의 남자의 무기력을 리얼하게 그려 허탈하기까지하며 마지막 장면의 웨딩드레스와 또 다른 간통은 차라리 희화적이다.

이 작품은 화스빈더가 전후 독일의 사회부패와 관료체제의 맹점 그리고 도덕의 허약함을 풍자 오늘의 독일사회까지를 고발하자는 뜻도 보이나 장면 전체를 압도하는 로라의 관능미와 핑크빛 무드로 고발성은 힘이 빠졌다.

UA클래식스 배급으로 등급 R.

모짜르트 음악학원
학생모집
〈장학금제도실시〉

저희 음악학원에서는 적극적인 부모님들의 자녀 음악교육 성원에 힘입어 HILL CREST MALL(영×리치몬드힐) 내에 제2분교를 개설해서 자신을 갖고 책임지도하고 있읍니다.

우수한 시설과 명문대학 출신들의 교수진으로 이루어진 저희 음악학원에 자녀들의 음악교육을 맡겨주십시요.

우수한 학생들의 장려를 위해서 장학금제도로 실시중에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윤 호섭 올림

※수시로 등록할 수 있읍니다.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모짜르트 MUSIC CENTER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정동석목사 위임예배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귀하와 귀교회위에 항상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간 저희교회는 어려운 환난과 역경속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사랑으로 꾸준히 성장하게 된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정동석목사님 위임예배를 드리고저 하오니 부디 오셔서 기쁨의 제단을 함께 쌓을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일 시 : 1982년10월24일(주일)
오후6시—환영잔치
오후7 : 30—노회모임
오후8시—위임예배시작

장 소 : 50 ERB ST. W.
Waterloo, Ont.

KNOX PRESBYTERIAN CHURCH

임시당회장 : REV. A. M. BEATON
워터루—웰링톤 노회장 : REV. IRIS FORD

연락처 : 토론토 743—0816(정동석목사)
키치너 576—4926(김진욱장로)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소론〉

캐나다 대학가에 반영되는 한국상 ①

문우일 (박사. 매니토바대학 교수)

◆문우일 박사

대학가 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그 나라의 지도층이 될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때문인지, 낭만적인 맛도 있지만, 정치인들, 종교인 등 많은 그룹의 사회인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대학신문에 나는 글들은 우연중에 그 나라의 장래의 지도자들을 좌우할 수 있는 이유로 큰 중요성을 가질 수 있겠다.

따라서 어떤 악은 지도층 인사들은 간혹 대학신문을 이용하여 젊고 비교적 순진한 대학생들을 움직여 보려 하기도 한다.

물론 캐나다의 대학신문들을 보면 대체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종종 놀라울 정도로 수준이 높은 글을 싣는 때가 있다.

그런데 최근에(1982년 9월 20일) 마니토바대학 신문(The Manitoban)에 드물게 한국에 관한 특집기사가 났다. 불행히도 그 내용이 너무 엄청난 왜곡된 것같은 사실들이어서, 만약에 그 특집기사가 사실이라면 캐나다에 있는 한국계 사람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라도 한국공관들, 한국정부에 항의해야 옳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마땅히 우리 전부가 그 필자에게 항의하고, 공식사과를 요구해야할 것이다. 그 필자의 이름은 크리스·카바나이고 몬트리얼에 있는 맥길대학교 신문(McGill Daily)에 기사를 낸 것이 다시 실려진 것으로 돼있었다.

이 특집기사를 읽고, 당장 마니토바대학 신문사에 가서 물어보니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특집기사가 캐나다대학교총연합회가 각 대학교 신문사들에 발송한 것이기 때문에 캐나다 각 대학 신문에 전부 실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수행된 한국에 대한 모독행위인가!

비록 필자 크리스·카바나는 캐나다사람이더라도 그 내용으로 보아서 분명히 어떤 한국계 캐나다사람이 배후에 있을 것같아서, 또 그 특집기사 전부가 지극히 한국과 또는 한국계 캐나다인의 이미지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몇가지 논해보려 한다.

이 특집기사는 박정희씨의 독재부터 시작해서, 1980년 광주사건을 설명했다. 그 귀절중에는 군인들이 1980년5월17일부터 시작해서 10일간 학생과 시민을 무참히 총쏘아 죽이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여자들의 젖을 잘라버리고, 어린아이, 아기들을 총쏘아 죽인 것까지 기술되어 있었다. 또 군인들을 광주에 보내기전에 사흘을 굶겼으며, 광주에 파견되는 날은 소주를 먹여서 공산당을 잡아죽여야 한다는 명령하에 보내졌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또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사 이네즈·홀레밍톤이라는 분의 말을 인용해 쓴 바에 의하면, 광주에서 2,000명이 학살당했고, 15,000명이 부상당했다고 씌어있다. 이에 계속해서 전두환씨의 독재하에 한국국민이 얼마나 억압당하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가 했으며, 그런데 과연 캐나다정부가 전두환정권과 무역을 하고, 원자로를 팔려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줄거리의 글이었다. (계속)

金聖鍾 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89>

얼굴없는 死者 ⑬

胃에서 삭지않은 상어지느러미 검출…

『정황을 미루어볼때 피살자는 청산을 마신 직후 고통을 이기지 못해 몸부림쳤을겁니다. 당연히 바닥에 뒹굴면서 카페트를 쥐어뜯었겠지요. 그래서 카페트조각이 손톱 밑에 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으음….』

윤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와지고 있었다.

『보고했나?』

『아직 보고하지 않았읍니다.』

『좀더 조사하고나서 보고하지.』

『네, 그럴 생각입니다.』

『그게 카페트조각이 틀림없다면 피살자는 실내 거실같은데서 살해됐겠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트는 양질의 카페트입니다. 매우 비싼 카페트임이 틀림없읍니다.』

『어떤 카페트인지 알아보지.』

『네, 그렇지 않아도 알아볼 생각입니다. 카페트 제조회사에 가보면 알아낼 수 있을겁니다. 내일은 크리스머스라 안되고 모레쯤 찾아가봐야겠읍니다.』

『그밖에 또 있나?』

『네, 여섯째는 그의 위에서 검출된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부검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모두가 거기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군요. 그러나 저는 주의깊게 검토해봤읍니다. 그는 식사후 오래지 않아 살해되었는지 음식물이 삭지 않은채 그대로 있었읍니다. 부패되긴 했어도 음식물 종류는 충분히 분류해낼수 있었읍니다.』

『그래 무얼 알아냈나?』

『상어지느러미를 알아냈읍니다.』

『상어지느러미라구?』

『네, 상어지느러미 요리는 중국요리중에서도 최고로 치지요. 웬만한 사람은 평생가도 먹어보지도 못하지요. 그만큼 비싼 요립니다. 외국에서 귀빈이나 올때 연회석상에 올려놓는 요립니다.』

『아는 것도 많군.』

『검사기관에서는 위에서 검출한 그걸 놓고 생선은 생선인데 무슨 생선이냐 하고 논란이 많았던 모양 입니다. 그 사람들도 고런 건 처음 보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일류 호텔의 요리사를 찾아 갔읍니다. 음식에 기름기가 많은 걸 보고 중국음식인 줄 알았지요. 중국음식 요리 사는 그걸 보더니 대뜸 상어 지느러미라고 알아 맞히 더군요. 용하던데요.』

『그거, 기막힌 이야긴데….』

윤형사는 감탄하는 눈으로 젊은 형사를 바라보았다. 이 뚱뚱하고 미련스럽게 생긴 놈의 어디에 그런 날카로운 면이 있을까하고 생각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마형사는 그런 반응 따위에는 상관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시간이 없어서 아직 중국집은 뒤지지 못했읍니다. 내일 다녀볼 생각입니다.』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파는데를 찾겠다는건가?』

『네, 그런 요리라면 일류요리집에서 할테니 특급호텔 중국식당이나 일류 중국요리전문집을 다녀보면 알아낼 수 있겠죠.』

『좋은 착상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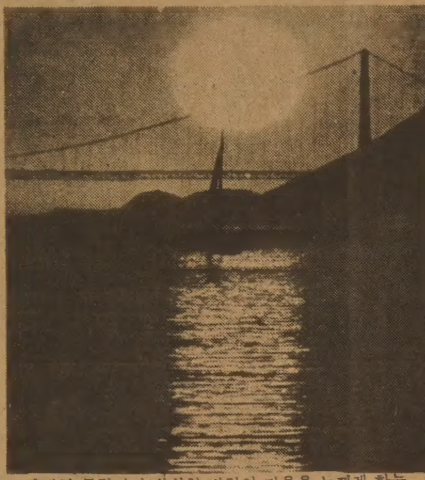
젊은 형사는 혀를 내둘렀다.

『저혼자 알아볼테니까 김형사님은 앉아계십시오.』

『아, 아니야. 이렇게 알아볼게 많은데 내가 가만 있을 수야 있나.』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朴男 그림



◆해질 무렵이면 신선한 바람이 가을을 느끼게 하는 북가주 베이지역. 금문교와 돛단배의 실루엣이 지는 해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다.(버클리)

독립기념관 건립 1인1불성금

장윤천(몬트리얼 교민)

어렸을 때 일을 상기해 본다. 여름철에는 매일 빠지지 않고 물놀이를 즐겼던 곳이 한강의 13번째 교량중 가장 긴 다리 원효대교 부근이었다.

송사리떼가 많았다. 장구벌레보다도 더 작은 이 송사리들은 한강물 속을 마음대로 유영하고 있었다. 그 반면에 송사리떼보다 몇천배, 몇만배나 큰 체구를 지니고 있는 뗏목들은 물결에 따라 흐르고, 그렇지 않으면 타력의 지배하에서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았다.

살아야겠다, 자활의 힘을 가져야겠다, 독립해야겠다, 독립정신을 가져야겠다고 내나름대로 외쳐본 일이 어제 같은데, 벌써 70여성상이 흘렀다.

우리 배달민족이 본의 아닌 모화사상, 사대주의 사상에 침전되었었던 것은 그릇된 위정자의 책임도 중차대하지만 국민들의 실책도 크다고 본다.

일찌기 도산·안창호선생은 "나라 뺏긴 것은 앗아간 편만을 흠잡기 전에 국민 각자가 우매했던 탓이라고 갈파하셨다.

배우지 못한 국민, 당파싸움에 시달릴때로 시달린 국민, 배고픈 국민, 문약한 백성, 쟁이를 천대한 사조, 바깥을 내다보지 못한 딱한 무리, 생활이 아니고, 생존에 허덕인 국민…

그래도 독립투사들은 강인했다. 국내외에서 피눈물나는 혈투는 계속됐다. 끈기있게 이어 나가고, 또 이어받았다.

"민족의 얼"은 죽지 않고 살아났다.

급기야는 조국광복의 희열을 맛보게 됐다.

은인자중, 고군분투하신 독립투사들의 덕이다.

그 사람, 그 얼, 그 혼, 그 얼, 두손 모아 감사, 또 감사할 따름이다.

이 불멸의 뜻을 이어받아 반석의 아성을 구축하려는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다.

나는 제창한다. 호소한다. 「독립기념관 건립 1인1불성금」운동을…

5대양 6대주 100여개국에 산재하고 있는 160만명의 재외국민들도 호응해 주기를 염원하는 바이다.

Y.C.CHANG,
5491 Sherbrooke W.
Montreal P.Q.
H4A 1W1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전문
서부지점 ☎: 243-9544
해밀톤지점 ☎: 1-385-1485
1391 WESTON RD

훼미리·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토: 오전11시~오후3시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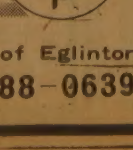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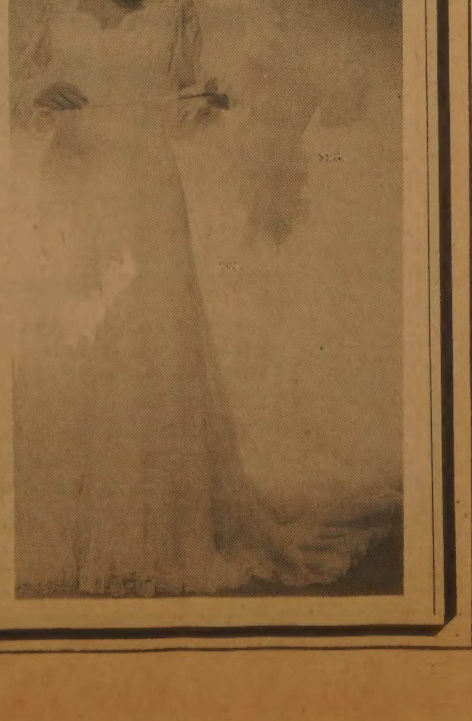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결혼을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하신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한국일보

어음不渡 刑事책임 검토

財務部 國會보고 "手票와 不均衡시정위해"

선의의 受取人 被害를 방지
商去來위축 우려 신중추진

정부는 어음부도에 대해서도 발행자에대해 刑事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무부는 14일 국회財務委에 제출한 자료에서 手票와 어음간의 형사책임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선의의 수취인을 보호하기위해서는 어음부도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다만 「형사책임의부과는 어음거래의 위축으로 商慣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있다」고 보고했다.

현행 어음수표단속법에 의하면 수표가 부도가 나면 형사책임을 추궁하게되나 어음의 부도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민사사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거액어음이 부도가나도 처리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여 피해를 보상받을길이 막연하고 처리가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李·張부부의 거액어음사취사건은 바로 이같은 법의 맹점을 이용한 사기사건으로 어음의 부도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부과한다면 기업들이나 李·張부부도 그처럼 무모한 사기행각을 벌이지 못했을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계의 일부 전문가들은 李·張부부 어음사취사건은 金融거래의 실명제가 시행되지않은데서 빚어진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어음거래에 형사책임을 묻지않은 현행법의 미비때문이라 할수있다고 지적하고 어음부도에 형사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어음거래가 위축되어 상관행에 지장을 줄우려가 있는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음부도를 너무 관대하게 방치함으로써 상거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어음과수표거래가 분리되어있고 수표에대해서만 형사책임을 묻고 어음에대해서는 민사사건으로 처리하고있는 歐美선진국의 경우 어음거래제도가 없기때문에 모두수표로 거래되고 있으며 수표의 부도에대해서는 형사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다만 日本은 ...

재무부는 일본에서 金融去來에대해 실명제를 보류하고 있는데도 歐美의 관행을본받아 실명제를 채택한 선례에 비추어 어음에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개혁도 歐美제국의 선례에따라 강력하게추진할 가능성이 없지않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개혁은 商관습에 지장을 줄뿐아니라 여당·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당국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위에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法개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것같다.

재무부는 이밖에도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재무부는 現代건설에 대해 계속 기업공개를 촉구하고있고 이에따라 현대건설은 최근 공개추진에 따른 문제점및 기업환경등에대해 신중한 검토를하고있으며 ▲일부고객에대해 ... 신탁은행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특별지시를 했으며 ▲共榮土建의 주거래은행인 ... 85억원(3천1백84건)중 9월말현재 58억원을 지급했다고 보고했다.

國債金利 10.5%線

政府답변 佛、北傀承認않기로 양해

國會, 6개常委열어

14일부터 常委활동에 들어간 國會는 이날하오 內務, 財務, 國防, 保社, 交通등6개 常委를열고 소관部處의 업무현황보고를들었다.

이날 外務委에서 李範錫외무부장관은 보고를 통해 『프랑스의 對北韓승인은 하지않기로 양국간에 서로 양해되었다』고 밝히고 『최근 金日成의 中共방문 및 지난4월 中共首腦陣의 北韓방문은 韓半島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韓·日관계에 대해 『현안의 經協문제가 진전을 보지못했지만 앞으로 韓·日관계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여유있게 시간을 두고 처리해 나갈것』이라며 『日本교과서 문제는 우리민족의 존엄성과 ...

◇전국체전 사상 처음으로 경남에서 개최되는 제63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입장하는 각시도 선수단에 박수를 보내는 全斗煥대통령과 영부인 李順子여사.

63회 國體개막

國力培養의 터전으로

全大統領치사 秩序意識은 民主시민倫理

【馬山=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14일 『전국 체육대회는 나라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도 겨레의 얼과 용기를 북돋우고 일깨우는 민족단합의 광장이 되어왔다』고 밝히고 『우리는 이러한 오랜 전통의 바탕위에 꾸준히 성장해온 이 체육대회를 이제는 단순히 운동선수와 체육인만을 위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건전한 국민정신을 함양하고 국가발전의 底力을 길러나가는 소중한 기회로 한층 승화시켜 나가야하겠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제63회 전국체육대회개회식에 참석, 치사를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특히 규칙과 질서를지키는 자세, 그리고 자기자신의 책임아래 이루어진 결과에 승복하는 태도는 비단 운동경기에서 뿐만아니라 사회생활을 영위해나가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지녀야할 민주시민의 기본윤리』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오는86년의 아시안·게임과 88년의 서울올림픽에 언급, 『온겨레가 반만년의 역사를통해 처음으로 맞이한 이뜻깊은 기회에 우리는 모든 세계인들에게 오랜 문화전통의 토대위에 개혁과 발전의 굳은의지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선진국민다운면모를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대회를 위한 준비태세가 착실히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열린 이번 體典이 참가선수는 물론 우리국민모두가 체육과 질서의식을 생활화하는 뜻깊은 다짐의 광장이 될것으로 굳게 믿고 또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개市道등 만7천健兒참가

【馬山=체전취재반】화합·인정·질서를 다지는 민족의 스포츠잔치 제63회 전국체육대회가 14일 상오10시 馬山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에서 개막, 6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馬山·晋州·昌原·鎭海등 4개도시에서 분산개최되는 이대회에는 전국13개시도와 7개 해외동포 이북5도등에서 1만7천33명의 임원·선수들이 참가, 19일까지 27개 종목에 걸쳐 힘과技를 겨룬다.

全大統領 어제歸京

全斗煥대통령 내외는 原子力발전소 9·10號機 기공식과 63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고 14일하오 歸京했다.

日自民黨 4役회의 결정

對話로 總裁선출

30일까지 常委활동 내주부터 政策질의

올해 노벨平和賞

두 反核지도자에

瑞典 뮈르달女史·멕시코 로블레스氏

独立紀念館 건립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14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南鮮物産(株) 李範舂사장 外 2백6만원

▲南鮮物産(株) 사장 李範舂씨外 임직원 一同=2백6만6천2백원 ▲在사우디 발라스트네담그룹 李藤宰전무外 한국인 一同=1백77만6천원

발라스트네담 李藤宰전무 外 1백77만원

歌手 金세레나 1백만원

변종덕씨 在뉴욕동포 1백만원

▲歌手 金세레나=1백만원 ▲在美뉴욕동포 변종덕씨=1백만원 ▲새마을지도자 江南區協議會회장 金俊洪씨外 指導者一同=75만3천원

【日刊스포츠접수】

새마을指導者 江南區 75만원

韓國綜合警備保障 39만원

維成物産李喜祥대표外 61만원

國立오페라團 출연자 20만원

原紀産業崔 瓚대표外 55만원

낙원 보림 16만원

三華交易金寬鎬 대표 50만원

서울연신國校 12만원

廣州新長 2里 2班 12만원

대순진리회장안동1구 11만원

永登浦電務會 11만원

韓榮교회 13만원

◇李藤宰씨

◇金세레나

◇변종덕씨

구독신청은 533-2361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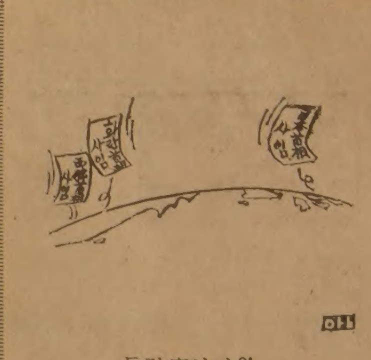
★일반서적 다량입하

714 BLOOR ST. W.

535-1920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社會漫評



돌림病인가?!…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불루어안경

❖ Rodenstock

❖ Zeiss(Marwite)

❖ Christian Dior

❖ Menrad

❖ 안경제조·수리·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 (No Appointment)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Green Shieleld

❖ 정부 보조 안경지정 영업소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합니다.

❖ Contack Lens

※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 4시30분까지

(안과의사 사무실은 본상점과 한 부록 떨어져 있음)

◈영업시간 : 월~목 9 : 30AM~7PM

금 9 : 30AM~8PM

토 9 : 30AM ~8PM

635 BLOOR ST. W

☎ : 531-2236(B) 886-0722 (R)

캐나다 전역에 걸친 콘테스트 세일

기간 : 1982년10월1일~12월31일까지

산요 자동·보온밥솥

왜 산요(Sanyo)를 사느냐구요?

● 산요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의 밥솥 부분을 차지합니다.

● 가격이 항상 저렴합니다.

● 결코 타는법이 없으며 자동조절이 됩니다.

각 식품점에서(소매상) 산요(SANYO) 일본밥통을 싼 가격에(경품티켓과 함께) 구입할수 있으며 티켓에 당첨되면 좋은 상품을 드립니다.

● JAPAN FOOD CORP(CANADA) LTD. TORONTO

● PRODUITS ALIMENTAIRES DU JAPON(CANADA) LTÉ MONTRÉAL

● ASIAN FOODS-VANCOUVER

종합보험

김 홍 랑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961-3774(B)

277-8733(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금고

막바지 불뿜는 美國 중간選擧

D데이 앞으로 18일

미국의 중간선거 熱氣가 D데이 18일을앞두고 막바지를 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갖가지 선거珍景도 여기저기서 속출한다.

오는11월2일의 미국중간선거에선 1백명의 상원의원중 3분의1인 33명과 4백35명의 하원의원전원, 주지사중36명을뽑게된다.

불과18일을 남겨둔 이번 선거에 공통된 이슈는 물론 국내경제문제다. 여름내내레바논, 이스라엘사태로 떠들썩했지만 역시 투표권자의 압도적인 관심은 경제문제란것이다.

야당인 민주당이 여기에 초점을 맞춘것은당연하다. 그들은 이번 선거를 레이건경제정책, 즉「레이거노믹스」에 대한 국민투표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불황도 그렇지만 그들이 들고 나오는 것은 먼저 실업문제이다.

실업률이 드디어 대공황이후 처음으로 두자리숫자인 10%선을 넘어선상황에서이에대한「모든」책임은 레이건의 정책에 기인한다는것이다.

실제로 레이건이 백악관에 들어왔던 81년1월 실업률은 7.4%이었음을지적하면서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구호『당신의 실업은 2년전보다 나아 졌읍니까?』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경제이슈에대항하는 공화당의 대책은 무엇인가? 경쟁이 심한것으로 꼽히고 있는 전국68개선거구의 선거전 양상을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대개3가지로 대처하고 있다.

첫째는 민주당측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 레이건의 경제정책이야 말로 이나라를 불황에서 건질 수있는 정책이라고 역설하는 방법이다.

지난 9월28일 레이건은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불황은 민주당집권시절에 저지른 실책의 소산이라고 민주당측을 통렬히 비난하면서 그 책임을 돌린것도 이와 유관하다.

경제정책이란 10년 또는 그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정책이고 레이건의 정책은 이미 이·나라경제를 침체의 늪에서 건져내고있는 중이라는 논리를편다. 경제의 속성에 비춰 볼때 아주 근거없는 것은 아니라는 주위의 얘기다.

이런것에 좀 이의를 다는 후보들에게는 두번째 방법, 즉 국민이 좀더인내만하면 레이건실책이 조만간 그효력을 나타낼것이며 따라서 공화당에 더기회를 주어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레이건이 기회있을 때마다 경기가 회복추세에 있다고 말해온것과 상통한다. 그러나 이두가지 방법이 [illegible]후보들은아예 선거전을 이런 이슈와 거리가 먼 지방문제에대한 호소로 치러나간다는 점이다. 환경문제같은것이 이범주에 속한다.

어쨌든 공화당이 경제문제에 시달리고있는것만은 틀림없다. 그래서 최근 당내의 낙관론자들마저 하원의석 1백92석중에서 10~12석을 잃을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극단적인 비관론자들은 잃을 의석을 40석까지 계산하고있다.

의회분석에 의하면 지난 60년간 집권당은 항상 중간선거에서 어김없이 평균 35석의 의석을 잃어왔으나 지난54년이후 잃은 의석수가 평균 12석으로 떨어진것으로 되어있다.

이것을 근거로 공화당측은 10~12석을 거의 당의 공식 분석처럼 말하고있으나 실제로 잃은 의석수는 이보다 약간 상회할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전통적으로 자금면에서 강한 공화당의전통과 실제적인 이슈가 경제란것이 민주당에 유리한것만은 아니라는게 공화당측의 위안이자 민주당측의불안이다.

레이건이 14일 (한국시간) TV연설에서 자신의 경제정책을 옹호하다가 이내 의회조크로 공격의 화살을 돌려 주목을끌었다.

공화당의석상실이 15석이건 20석이건간에 지금51석에 달하고 있는 하원의석차이가 더벌어지고 민주당의 의석차지가 약 3분의2선까지 되는 사태가 올경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도 많다.

레이건은 비록 경제문제등으로 인해 재임중반기에 와서 인기도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對의회관계에 있어서는 최근의 어느대통령보다 탁월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할수있다.

6일에 닥쳐 소동을벌인 그레이·아널드후보가 비난했다는 9백30억달러 증세법안도 민주당인 오닐하원의장을 선두로한 민주당측의 정책적인 동조로통과가 가능했을 만큼 레이건은 민주당이 다수인하원을 능숙하게 다루어왔다.

이번에 재선대상이 되는 의석을 제외하고도 공화41석, 민주당26석의분포를이루고있고 여기에 재선대상자들이 공화당이13석인데 비해 민주당은 20석으로되어있어 공화당의 상원지배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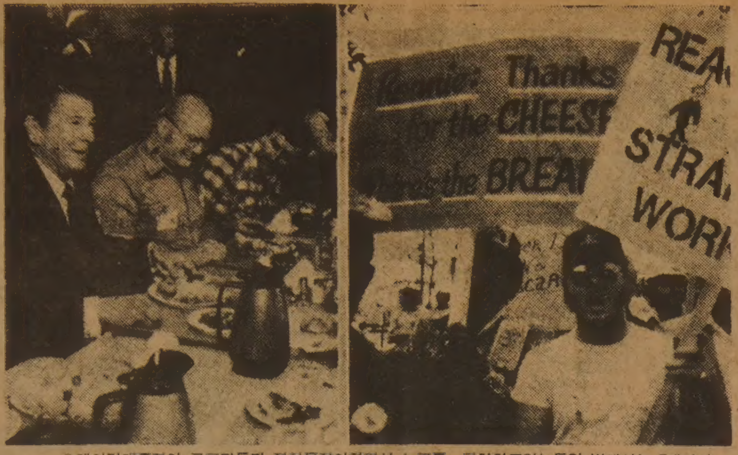
상원과 하원을 합쳐 모두 2천20명의 입후보가등록을한 이번 중간선거는결국 레이건의 정책에 대한 반대의 강도를 측정해주는 기회가 될것이며 2년후를 가늠할수 있는 주요한 시금석이 될것이라고 많은사람들은 보고있다.

【워싱턴=李文熙특파원】

經濟침체가 兩黨촛점

民主공세에 共和 "좀더 기다리라" 응수

레이건 人氣하락、下院 10~12석 잃을듯



◇레이건대통령이 근로자들과 점심을같이하면서 노고를 치하하고있는동안 밖에서는『레이거노믹스가 근로자들을 목졸라죽이고있다』고 외치며 열띤 시위를 하고있다.

메아리

별하나…

하늘을 본다.

無數한 별이 반짝인다.

그러나 정작 육안으로 한눈에들어 오는 별은 2천5백개쯤이나 되리라고 한다.「無數한 별」은 일종의 착각이란 설명이따른다.

착각의 첫째는 過大視다. 무엇이 많이 있을때 사람들은 그 수를 過大하게 본다. 별처럼 그 배열과 대소가 불규칙하면 그런 경향이 짙어진다.

다음의 착각은 推量효과란것이다. 사람들은 별이 밀집된 부분을 보며「많다」고 여길때 다른 부분에도 그렇게 많은 별이 보이는 것으로 짐작한다.

「별하나 나하나」의 어린적을 생각하여 참 멋적은 얘기지만, 기왕 말이 이렇게 흘러간김에, 좀 딱딱한 숫자풀이를 해본다.

지구에는 知的生物 45억이 산다. 지구는 직경1만3천㎞의 공이다. 지구가 속한 태양계는 직경1백50억㎞, 빛이 가로질러 가는데 14시간걸리는圓盤이며,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는 직경 10만광년의 볼록렌즈 모양이다. 이 공간에 4천억개의 항성이 있다. 지구같은 행성은 1조개를 넘는다. 이만하면 無數하다는 말에 거짓이 없다. 추정에 근거한 숫자지만 착각의 산물은 아니다.

이렇게 별이 많다 보면 그 가운데 知的生物이 살만한 별이 지구말고도 또있을지 하다. 코넬대학의 행성 천문학자 칼·세이건은 지난번 KBS텔리비전이 방영한 코스모스 시리즈에서 그같은 별이 있을 확률을 계산해 보였다. 그 해답은 은하계에서 생명이 깃들만한 별이 1천억개, 그중에서 文明世界를 발달시킨 별은 10개정도. 이 숫자가 하찮다여기는 사람은 이 우주에 은하계 같은 섬우주가 1천억개나 있음을 생각하기 바란다. 그야말로 文明世界가 無數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세이건 스스로는 이들 文明世界에서 UFO(未確認飛行物體)가 날아온다는데에 회의적이다. 적어도 과거에 外界人이 지구를 방문했을 가능성은 부인한다.

20세기 제1의 과학소설 작가이자 우주과학의 권위자인 아더·클라크도 마찬가지다. UFO-또는 UFO的인 현상을 10차례나 목격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당신이 지금껏 UFO를 본적이 없다면, 당신의 관찰력은 그리 예민하지 못하다. 당신이 나만큼 여러차례 UFO를 본일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있어 UFO는 증명할수있는 착각이거나, 그냥「未確認」일뿐이다.

그는 UFO=宇宙船說을 너무「편하고 단순한」推理로 규정한다. 그는 外界人이 온다는 것이상으로,「정말놀라운」사실이 UFO로 밝혀질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나는두 사람의 글을 즐겨 읽는다. 최고의 과학지식과 상상력을 아우른 그들의 글은, 쉽고 명쾌하고 꿈이있어 좋다. 그러기에 두 사람이 UFO에 회의적인 것이 서운할 때가 있다.

그러나 두사람은 모두 언젠가 地球人과 外界人의 클로스·인카운터(對面)가 이루어질 날을 꿈꾼다.

그를 위해서 세이건은 72년봄 발사한 木星탐색선 파이오니어에, 外界人 에게 보내는 메시지板을 부착하도록 NASA(美航空宇宙局)를 설득했다. 메시지板에 裸身의 남녀와 記號·圖案을 그려 파이오니어의 내력, 탐색선을발사한 地球人의 모습을 알리려는 것이다.

파이오니어는 73년11월 木星에서 14만㎞상거한 공간을 지나 지금도 끝없는 우주공간을 항진중이다. 초속 13·2㎞의 속도인 파이오니어가 木星을 지나 가장 가까운 다음 별에이르는데는 8만년이 걸린다. 빨라야 8만년, 아니면 수백만년이 지나서, 外界의 知的生物이 그 메시지를 판독할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

참 아득한 얘기다. 우주를 가득 채운 듯이 보이는 별들이지만, 그 密度는 유럽大陸의 개미 3마리」꼴이다. 세이건의 메시지는 허공을 향한 외침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外界人과의 접촉시도는 부질없는 짓일까. 그보다는 그래서 꿈이 있다고 해야 할까.

세이건은 이런시도가 우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높여 줄 것을 기대한다. 올바른 과학지식의 보급이 세계평화를 가져 오고, 끝내 인류를 自滅에서 구한다고 믿는 그 다운 발상이다. 파이오니어는 바로 地球人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다.

그의 생각처럼, 엇그제 우리나라를찾아왔다는 UFO는 그런 메시지를 이땅에 전해주는 구실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우주를 향한 호기심·관심·외경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들 사이의 꿈이 조금은 되살아날 것이다.

UFO는「未確認」이어서 꿈이 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별하나, 나하나」를 잊고 있었다.

金昌悅 <編輯委員>

노벨平和賞 수상자 프로필

스웨덴 알바 미르달女史

核軍縮운동…夫婦수상자론 3번째

◇미르달女史

알바·미르달여사(80)는「아시아드라마」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스웨덴의 사회경제학자 군나르·미르달의 부인이다. 사회개혁주의자, 사회과학자, 저술가, 외교관, 관료, 평화주의자 등의 다양한 면면을 가진맹렬여성이다.

50년이상동안을 군비감축과 여권신장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80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非核지대설치를 제안하고 세계여러나라의 反核운동을 지원하는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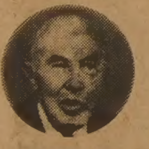
알바·미르달여사는 30~40년대에는 여권신장운동자, 아동복지향상및 성교육실시등을 주장하여 스웨덴이 세계제일의 복지국가가 되게 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여사는 50년대에 들어 외교가에 투신, 55년에 스웨덴 최초의 여성대사가 됐다. 부부가 함께 노벨상을 탄것은 1903년 퀴리부부에 이어 미르달부부가 세번째다.

유엔군축회담및 제네바 회담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선각자적 입장에서 核무기가 가져올 재앙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 왔다.

멕시코 外交官 로블레스氏

美·英·蘇만의 核실험금지조약 반대



◇로블레스씨

올해 71세인 직업외교관 알폰소·가르시아·로블레스씨는 현재 유엔軍縮위원회 멕시코수석대표로 일하고있다. 그는 이번 공동수상자 미르달여사와도 여러해동안 함께 일한적이 있다.

그는 지난77년1월 현직책을 맡기전 76년에 본국에서 外相을 지냈다.

그의 주요업적은 67년 라틴아메리카를 非核化조약을 준비했던일, 南美대륙 21개국으로하여금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실험 또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이조약은 규정했었다.

그는 최근 유엔군축위원회에서 核무기실험 전면금지조약에 관한 회의를 美·英·蘇 3개국만 독점하는것을 타파하는데 공을 세웠다.

지난 4월 이 독점의 벽을깬으로써 40개회원국 모두가 참가하는 포괄적인 核실험금지회의를 열수있게 되었다.

로블레스대사에겐「汎美주의와 선린정책」(40년)、「전후의 멕시코」(44년)、「전후의 세계-대서양헌장부터 샌프란시스코회의까지」(47년)、「라틴아메리카의 核무기금지」(75년) 등 저서 14권이 있다. 그는 현재 제네바에 머물고있다.

레바논基督·回敎徒 이틀째 砲擊戰

【베이루트諸AP=聯合】레바논의 팔랑헤黨소속 기독교우익민병대와 좌익드루즈파 회교도들은 13일 중부레바논산악지대에서 연이틀째 치열한 표적전을 벌임으로써 레바논내 양대세력인 기독교와 회교도간의 분열이 심화되고있다고 레바논국영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이와함께 이스라엘군과 시리아군도 레바논동부 베카계곡에서 이날아침 소규모총격전을 주고받아 시리아군2명이 부상했다고 시리아군대변인이 주장했다.

鎭痛劑타이레놀 쇼크

캡슐變質防止등 방안모색

當局 變質식별법등 消費者계몽강화

藥禍 사건이후에 販賣量 대폭 줄어

진통제타이레놀의 충격적藥禍사건은 발생지인 미국사회는 물론이고 의약품유통질서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 일부 국가에도 큰 교훈을 주고있다.

타일레놀병과 캡슐에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교묘하게 넣어 아무 의심없이 약을 사다먹었던 시민7명이 목숨을잃은 이사건의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은채 정신이상자나 제조회사를 망쳐놓으려는 음모의 소산일 것으로 추측되고있다.

이 사건으로 미국식품의약국(FDA)등 관계당국에선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 여러모로 死後藥方文을 마련중에 있다.

그 첫째는 내용물의 變造를 막기위해 제조회사들로하여금 의약품의 포장, 캡슐의 형태를 바꾸게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정부가 포장및 賣藥품목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처방없이 파는 의약품 판매에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밖에 변조내용을 소비자 스스로가 판별할수있게 하는 계몽활동과 함께 소비자의 위험에 대비한 조기경보체제의 확립이다.

당국이나 제약업계는 우선 소비자들이 내용물의 변조여부를 쉽게 식별할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포장방법을 연구중이다. 병에 들어가는 약품의 경우 內皮膜 밀봉법, 뚜껑을 제거하면 찢어져 버리는테를 뚜껑에두르는방법, 熱봉합되는 수축끈을 뚜껑에 두르는 방법등이 검토대상에 오르고 있다.

또캡슐약품의 경우 분리와 결합이 가능해서 내용물을 쉽게 바꿔치기할수있는 현행의 두쪽 캡슐대신 액체생약품포장에 쓰이는 아교캡슐을 쓰는 방법과 캡슐두쪽을 특수끈으로 붙여놓는 방법등이 연구되고있다.

약품포장회사인 파마캡社의 라이오넬·보컨사장은 캡슐을 뜯으면 내용물이 흘러나와 모두 못쓰게되는 軟性아교캡슐이 변조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軟性캡슐전환에 큰 문제는없다고 말하고있다.

사건이 발생한 일리노이州 쿠크郡은 이지역에서 팔리는 모든 비처방약품에 대해 뚜껑에 덧붙여 밀봉을 하도록하는 郡조례를긴급통과시켰다.

◇시카고의 의약품연구소직원들이 殺人 타일레놀 사건직후 긴급수거된 2백만개의 타일레놀캡슐에서 청산가리가 들어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있는 일리노이州 타이론·파너검찰총장은 이같은조치가 全미국에서 시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에서는 제약업계 및 FDA관계자들이 합동기동반을 편성, 약품의 포장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위한 작업에착수했다.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자들은 소비자에대한 계몽이최선의 보호책이란점을 강조하고있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약품이 들어있는 병과 포장상태및 내용물을 주의깊게살펴봐야한다고 말하고있다.

殺人타일레놀병을 검사한 수사관들은 내용물이흐트러졌거나 퇴색돼있었으며 캡슐의경우 레이블이떨어져 變造됐음을한눈에알수있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약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것도 적신호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당연한 결과로 미국에선 진통제의 매상이 크게 줄었다.

텍사스대학의 약학교수인 크레이그·브래터박사는『이 사건으로 미국인들이 약을너무많이 먹는다는 사실을 깨닫게되기바란다』면서『머리아프다고 진통제를 먹을게아니라 낮잠을 자는게 낫다』고 충고했다.

이 사건이 미국경제에미친 충격의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포장비가 많이 먹히면 약값이 오르고 결국 소비자가 그것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아뭏든 이사건은 아무리 예방조치가 철저하다해도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현대사회에서 정신이상자나 범죄자의 범죄행위로부터 소비자가 절대적으로 안전할수없다는 점을 새삼 일깨우고있다.

【林鍾乾기자】

◇올미스 인터내셔널 미스·아메리카 크리스티·앨런·클래리지양이 13日 日本 후쿠오까(福岡)에서 벌어진 미스·인터내셔널대회에서 왕관을 차지한후 기쁨에겨워 눈물을글썽이며 미소짓고있다.【후꾸오까(福岡) 14日UPI=聯合】

海外토픽

자유女神像서 시위

★美3女性 이란政策항의

3명의 젊은 미국여자들이 자유의 여신상 위에 올라가 수갑으로 서로를 연결한후 이란의 인권탄압에 반대하는 항의시위를 벌이는바람에 자유여신상의 일반공개가 15분동안 중단됐다.

「이란의 인권수호 미국인」을 자처하는 애미·그러브즈양(25) 등 3명의 여성들은 12일 자유의 여신상위에 올라가『호메이니에 의해 자행된 2만명의 이란인처형과 5만명에대한 고문행위를 규탄하자』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날 유엔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인 알리·아크바르·벨라야티 이란외상을 미국에서 逐出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여성들은 자유의 여신상 관리인들에의해 체포돼 공공재산파손혐의로 치안판사에게 기소될 예정인데 자유의 여신상은 최근 몇년동안 이같은 항의의 장소로 곧잘 이용돼왔다.【뉴욕=UPI】

웃옷벗은 앤드루

★英國사진기자 촬영성공

누드배우 쿠·스타크양(25)과 카리브해의 무스티케섬휴양지에서 밀애를 즐기고 있는 앤드루왕자의 거동을 뒤쫓고있는 영국신문의 사진기자들은 12일 마침내 웃옷을 벗은채 수풀사이를 헤매고있는 그의 모습을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선지는 이날 이 사진을『나는 타잔, 당신은 쿠양』이라는 제목으로 첫페이지에 실었다.

한편 런던·미러지는「무례한 왕자」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뉴질랜드에서 교사생활을 하고있는 앤드루왕자의동생 에드워드왕자가 자기한테 전화를 건 한 칼럼니스트에게『도대체 무슨권리로 나에게 전화를 건는거냐?』는등 무례한 언동을 했다고 비난했다.【런던=UPI】

中共서 새爆藥개발

★爆音없어 利用에 편리

중공과학자들은 지금과 같이 폭발과 폭음을 내지 않고도 단단한 콘크리트건물을부셔 철거할 수 있는 새로운화약을 개발했다고 13일 중공관영신화사통신이 보도했다.

北京 시멘트협회소속 과학자들은 새로 개발된 폭약이 값도 싸고 생산방법도간편할뿐아니라 운반이 안전하고 사용때 건물과 그 주변에 별 진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밝혔다.【北京=AP】

精神질환으로 退任

★前캄보디아 소반首相

베트남의 지원을 받고있는 캄보디아 헹·삼린정권의 수상 펜·소반은 수면제 과용으로 정신질환에 걸려 지난해말 수상직에서 밀려났다고 훈·센캄보디아외상이 발표했다.【프놈펜=共】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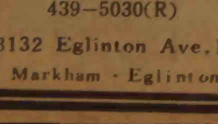
대형차 : 스테이션왜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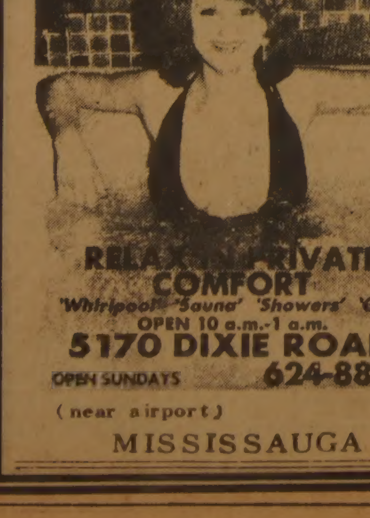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맛사지



DIXIE HEALTH STUDIO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 · 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개업인사

한인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가 블루어상가(한국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에 변호사 사무실을 OPEN하여 한인교포여러분들을 성심 성의껏 봉사코자 하오니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코저 한인 여사원이 수고하고 있읍니다.

RALPH M. LEVINE B.A.
변호사 (BARRISTER AND SOLICITOR)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 : 533—8539

戰後세계와人物 <2>

닉슨이 본 激動 現代史의 主役들★

샤를·드골

◇열정과 신념과 설득과…대통령재직중 기자회견때 드골이보인 여러 표정을 카메라가 잡은것이다。

1970년11월12일 세계각국의 지도자들이 파리에 모여들었다。바로 사흘전 80회 생일을 두주일 앞두고 샤를·알드레·조셉·마리에·드골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63명의 前·現職국가원수들이 참례식에 참석했다。나도 미국대통령으로서 또 친구로서 그의 마지막을 지켜봤다。

드골의 유해는 유언에 따라 72달러(5만3천원)짜리 평범한 참나무관에 넣어져 얼마 안되는 향리의 묘소옆에 안치됐다。묘비명도 간단했다。「샤를·드골 1890~1970」。역시 유언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거인의 마지막 자취로는 초라하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드골을 아는 사람에게 그의 인상을 물어보면 대부분「키가 크다」「근엄하다」「대하기 어렵다」「의지가 강하다」고 답한다。내 기억에도 마찬가지다。그는 무척 깊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다。세계의 많은 지도자중 그만큼 개성이 강한 사람은 별로 없다。그는 완고하고 신념이 있으며 자신감이 넘치는 엄청난 에고의 소유자였다。

그는 스스로 오직 자신만이 해낼수있는 하나의 역할을 만들어놓고 이 배역을 충실하게 연기해냈다。그 즉 프랑스를 人格化한 역할이다。그는 프랑스만을 위해 살았으며 프랑스는 비로소 그 자신이었다。

내가 드골을 처음 만난 것은 그가 권좌에 복귀하기 2년전인 1960년 미국을 공식방문했을때였다。

나는 그때까지 드골에 대해 일종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차갑고 도량이 좁으며 건방지고 비위에 거슬리며 이기주의적이라는 선입감이었다。47년 내가 하원의원 시절 프랑스를 방문했을때 만났던 프랑스및 미국관리들도 모두 입을 모아 드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했었다。

그러나 직접 만나보니 과거 기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말하던 것과는 딴판이었다。그는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다。그러나 필요이상으로 따뜻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너무 거칠지도 않았다。난 그가 매우 점잖은 신사라고 느꼈다。

그는 역사속에 있기를 거부하고 역사를 창조해 내려고했다。드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意志」였다。그는 자신의 의지를 실현함으로써 역사를 창조해나갈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그는 또 프랑스는 스스로 위대함을 향해 나가야만 한다고 믿었다。그는 자신이 프랑스를 具體化한모습이라고 믿었으며 자신의 의무는 프랑스 정신을 북돋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神秘·個性·위엄 함께지닌 巨人

"프랑스가 바로자신"…역할정해놓고 演技

1932년 프랑스국방대학 강사시절에 그가 집필한「칼날」이란 책에는 이같은「드골장군」의 사상적 골격이 잘 나타나 있다。

당시 41세의 이름없는 육군장교였던 그는 지도자는 올바른 길을 찾아내기위한 천부적 본능과 지혜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권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있다。

그가 말하는 본능이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전이라든가 통찰력, 현실감각등을 일컫는 것이다。

드골은『지혜는 우리에게 대상에 대한 이론적 추상적 「지식」을 주지만 본능은 실제적 구체적 「느낌」을 준다』면서 사태의 복잡성을 꿰뚫고 본질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본능이며 지혜는 여기서 발견된 본질을 판단하고 형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69년 내가 프랑스를 방문했을때 드골은『나는 내일신문이 아니라 모레신문을 생각하며 정책을 세운다』고 말한 적이 있다。많은 정치가들이 그날그날의 신문제목에 얽매이고 순간순간의 압력에 좌우되어 결과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을 잃게되지만 드골은 한순간을 위해 살지는 않았다。

그리스신화에 아폴로가 카산드라에게 예언의 능력을 선물했으나 그녀의 경고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예언을 믿지않기 때문에 재앙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드골은 현실을 꿰뚫어보는 예지만으로는 불충분함을 잘알고 있었다。지도자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일단 하기로 결정한 것을 남이따르도록 설득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지도자는 신비함, 개성, 위엄이 있어야 한다고 드골은 주장했다。

그가 누구의 어깨를 두드린다거나 팔을 잡은 적은 아마 한번도 없었을 것이다。대인관계에서 그는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가끔 저서에서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일이 있었다。이유를 물어보면『내 마음속의 나이외에도 또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내가 또하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그는 무슨일을 할때마다『어떻게 하면 드골로서 올바른 행동인가』『사람들은 드골이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할까』등등의 생각을 했다。

그는 정치는 하나의 연주무대라는걸 인식하여 자신에게 맡겨진「드골장군」이란 배역을 충실히 연기해냈다。

그는 한 비망록에서『나는 평생 프랑스만을 생각해왔다』고 말하고 또『나에게 있어 위대성없는 프랑스는 프랑스가 아니다』고 술회했다。

드골은 프랑스가 역사를 창조하는 국가가 아니라 남이 창조한 역사를 단지 추종하기만 하는 운명을 겪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되풀이해서 강조했다。

그는 과거 문학·역사·과학·문화·예술의 중심이었던 위대한 프랑스를 되살려야 한다고 항상 다짐했다。

드골이 미국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北대서양조약기구에서 탈퇴한것이나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 보유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드골이「칼날」에서 언급한 지도자의 자질은 간단하지만 분명한 것들이다。

즉 만일 지도자가 신비, 개성, 위엄을 지니고 있다면 그는 특권을 보유하게된다。그리고 특권과 카리스마를 연결시킬 수 있다면 권위를 확립할수 있다。

권위에 예지까지 더할수 있다면 드골처럼 역사상 커다란 획을 그을 수있는 것이다。그러나 신비·개성·위엄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상당한 댓가를 지불해야한다。

드골은 지도자는 사소한 즐거움이나 가벼운 만족감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지도자는 마땅히 엄격한 자기수련과 끊임없는 모험, 내부갈등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드골 프랑스대통령이 1969년 닉슨과 함께 베르사유궁을 걸어나오고있다。

"모레新聞생각하고 政策세운다" 인상적

드골은 가정과 직장을 엄격히 구별했다。엘리제궁의 집무실과 관저와는 지척이었으나 완전히 별개의 세계였다。

그가 일단 퇴근하면 보좌관들도 긴급사태외에는 감히 그를 만나볼 엄두를 못냈다。마찬가지로 그가출근해 국사를 다룰때면 가족들은 그를 절대로 방해할수 없었다。

내가 그를 마지막 만난것은 아이젠하워의 장례식장에서였다。우리는 그때 만나 그의 공식訪美계획을 짜기까지 했었는데 69년4월29일 갑자기 대통령직을 물러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가 물러난 이유는 어찌 생각하면 아주 사소한 문제때문이었다。그가 제안한 상원및 지방의회개혁에 대한 국민투표의 패배때문이었다。

후에 앙드레·말로가 그에게 왜 그렇게「어리석은」문제로 인해 사임했느냐고묻자 그는 드골답게『바로 그것이 어리석었기 때문』이라고대답했다고 한다。

나는 드골이 은퇴한후 그에게 미국을 방문해 줄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드골은 편지를 받은 당일로 손수 펜을들고 감사의 뜻과함께 언제고 미국을 방문, 다시 만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정감어린 편지를 보내왔다。

이것이 드골과 나사이에 오고간 마지막 교신이 되었다。

政府·企業·국민 내년景氣視角이 다른데

「3高體質」에 「3低投藥」 回復엔 對症療法 필요

貯蓄·證券의 인센티브없애 金利二重 구조·企業엔 資金難

엇갈리는「期待」

[illegible] 경제를 보는 視角은 저마다 다르다。똑같은 경제를 보는 시각이 다름으로 차이가 날수 밖에 없다。

명년도 경제는 어떻게 될까。지금 우리의 최대관심사인 이문제를 보는 눈도 정부、기업、가계등 3者가 모두 틀린다。

지금 국회의 심의대에 오른 정부의 명년도 예산과 稅制、實名制등 여러 경제시책에 대해 賛反論이 활기를띠는것은 올해들어 크게 벌어지게되어있는 명년의 경제에대한 기대의 격차에서 이유를 찾아 볼수있다。

올해들어 우리경제는 불황의 대가를 지불하고 한자리수의 물가안정(9월말현재 전국소비자물가 4.5%、도매물가 2.1%)을 얻었다。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경기가 침체한데도 물가는 뛰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 났다。그러나 불황과 물가안정은 불가피하게 稅收감소를 가져왔다。정부는 명년도 경제가 내외의 여건으로 보아 경기가 올해보다는 다소 부양된다해도 올해의 軌道를 크게 벗어나지않을것으로 예측하고있다。

지금까지 高成長、高물가、高金利등 3高환경에 젖어온 우리 경제로서는 이질적환경에 접하게 된셈이다。

정부는 경제를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키기위해 정책의 급선회를 시도했다。

姜慶植재무장관은 안정성장、低인플레、低金利등 1安定、2低時代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불행히도 우리경제에 일대파문을 던진 張女人어음사건이 직·간접으로 정책의 선회를 가속화시켰다。

이결과로 나타난 작품이 명년도의 赤字긴축예산이요、實名制와 세율인하를 골자로하는 稅制개혁안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책전환이 기업과 가계등 민간부문사이에 상당한 반발을사고있다는것이다。

명년도경제에대한 일반의 기대는 정부보다는 훨씬 보수적이다。高인플레、高금리등에 익숙한 그들에게 하루아침에 低물가、低금리에 맞게 체질개선을 하라고 요구하는것은 무리다。

일례로 명년도 경제정책은 물가 5%를기준으로 세워졌다。이에따라 공무원급료인상도 평균6%로 잡았고 민간업체의 급료와 임금도 이수준으로 인상선을 내정하고있다。여유가 별로없이 빡빡하게 잡은 임금가이드라인(행정지도선)이다。아울러 올해 추곡수매가격도7%선안팎에서매듭지어질듯하다。

또한「있는자」들은 어떠한가。경제가 인플레없는 성장을 하자면 이들의 여유자금을 저축이나 자본시장으로 유도、기업에低利의 투자자금을 제공해야하는것은 교과서적인 말이지만는 진리임에는 틀림없다。정부는 물가 5%안정을 전제로 예금금리를 8%로 내렸다。이래도 실질금리(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금리)가 보장되므로 저축자에게불리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금리인하이후의 저축(투자)동향은 이것이 錯覺임을 입증해주고있다。증권시장에서 社債수익률이 16%로 올랐어도 社債소화가 외면당하고 있다。

물가5%를 신뢰한다면는 공금리의 2배나 되는 社債가 소화되지 않을리가 없다。반면에 開浦洞등 서울변두리지역의 신흥아파트지역에서는 악성投機붐이 재연되고있다。그런가하면 지난9월말 秋夕을 앞둔 자금성수기때에는 서울시내의 私債시장이 다시 살아났다。금리는 25%내지 30%선。公金利와 私金利의 괴리현상은 심화되었다。

미래를 보는 정부와 민간의 視角의 상충이 이처럼 불길한 정책의 逆효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金利의 괴리현상을 줄여보기위해 短資會社등 제2금융권의 금리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겠다고 밝히고있다。

實名制 딜레머

정부의 새로운 경제시책의 성패는 금융정책에 달려있다고해도 지나치지 않을것 같다。특히 올해 수정예산과 명년도예산은 모두 9천억원의 國債발행을 세입에 포함하고있어 재정의 자본시장의존도가 크다。여기서 유의하게되는것이 금리와 稅制보완및 實名制다。

재론은 말할것도없이 實名制다。수없이 거론되어왔지마는 實名制의 문제점은 당위론과 현실론의 갈등이다。당초 정부의 원안인 7·3조치가 나왔을때 반대의 여론이 強했던것은 정부안이 지나치게 卓上空論에 가까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民正黨의 黨·政협의에서 상당히순화되었다。黨안으로 발표된 수정안 8·17조치는 논쟁의 대상이었던 자금출처문제에대해 83년6월30일까지 實名化하는경우에는 불문에 붙이기로했고 5%의 과징금만 물면 假名으로 [illegible] 있을수 있도록했다。특히 7·3조치전 가명예금과 유가증권은 만기때까지 과징금을 면제해주도록 해주었다。

정부로서는 또한 假名私債化의 양성화길을 터주기위해 短資會社와 相互信用金庫의 설치를 권장해주기로했다。

가명예금과 유가증권의 反社會性을 감안한다면는 8·17民正黨案은 현시점에서 당위성과 현실성을 적절히 감안한 절충안이었다。대다수의 여론도 이를 받아들여 여론이 수렴된것이다。그러나 최근 이수정안을 만들어놓은 民正黨일부에서 實名制의 白紙化나 또는 연기론이 머리를 들고나왔다。黨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했고 金俊成副總理도『계획에 변함없다』고 밝혔지마는 그러운이 [illegible]

돈쫓아 投機조장…低金利 흔들려

實名制와 資本시장 함께 살려야

「봉급 6%引上」가이드라인등 共感에도 문제

◇證市의 두얼굴。Ⓤ은 7·3조치이후 계속 내리막길를 치닫고있는 서울證市。Ⓓ는 美연방준비은행의 통화긴축완화로 사상최고의 熱氣를 띠고있는 뉴욕證市。

아직도 증권시장주변에서는 살아있다。불필요한 不協和音이 일고 있는것이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實名制는 물을 밟을만큼은 밟았다。이미 빠져나갈 자금은 다 빠져나갔다。實名制의 충격이 가져온 사회적 댓가도 이미 지불됐다』고 본다고『이제 實名制를 후퇴시키면 다시는 기회를 잡기어렵다』고 논평했다。

경제가 地下경제에 끌려다니는 지금의 병폐는 영원히 시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實名制에대한 事理가 이처럼 明明한데도 증권시장에서는 여전히 거부 반응이 강하다。증권관계자들은 지금도 유휴자금이 계속 시장을 빠져나가고있다는 것이다。이에따라 기업의자금조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주가지수와 주식거래량이 7월이후 계속 내리막추세를 보여온것은사실이다。주가지수는 7월의 평균 [illegible]

[illegible] 회이다。기업의 은행돈은 좁아질수밖에 없다。

더욱이 올해와 명년에 걸쳐 9천억원의 國債까지 자본시장에 쏟아져나오게 되므로 기업의 자금조달에 먹구름이 일게 되어있다。이른바 國債에 밀리는 크라우딩아웃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있다。

實名制의 실시가 자본시장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다면 우려되지 않을수없다。이에따라 實名制와 자본시장을 다같이 살릴수 있는길을 모색해야한다는것이 정부의 숙제다。또한 국회의 과제이다。

증권관계자들은 實名制의 부작용을 줄이기위해서는 분리과세가 되는 사채권수의 범위를 개정세법안에서1개社주식3천만원이하로 되어있는것을 1억원으로 현행처럼 원상회복시켜줄것을 요구하고있다。또한 배당금을 받을때에만 實名化하고 거래시에는 實名化를 留保해줄것을 주장하고 있다。

1,169.4포인트에서 10월들어 1,100포인트까지 빠졌다。주식거래량도 7월의 日평균 1천6백만2천株에서 6백만株로 줄어들었다。정부가 역시 우려하는것도 이점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방만해진 통화량을 조일방침이다。9월말현재 저축성예금을포함한 총통화(M2)는 1년전에비해 33.5%늘었고 물가에 직접영향을 줄수있는 현금과 요구불예금을합한 통화(M1)는 무려 68.7%가 증가했다。인플레유발효과가 가장 큰 화폐발행고도 43.1%가 증가했다。이위에 10월말께는 추곡수매자금 6천5백억원을 방출해야 한다。통화량을 수속하지 않을수 없다。정부는 연말까지 총통화의 증가율을 30%선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어려운 결정이다。

정부는 명년도 경제시책을 경제성장 7.5%、도매물가 5%로 잡고 편성했다。과욕이 없는 보수적인 목표라는것이 정부측주장이다。사실 이정도의 목표라도 달성되면 대성공이다。올해경제도 성장 6%、도매물가 5%선이 될것으로 보고있다。지금 경기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있겠으나 전반적으로 경기종합지수(CI)가 지난3월이후 계속 6개월째 거북이걸음으로 상승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 되어있다。적어도 不況의 최악기는 벗어난것이 확실하다。경기의 바로미터가 되는 건축허가면적(8월말현재 前年同期比 27.5%)、在庫(5월이후 4개월째감소 0.2%내지 3.4%)、출하(소폭으로 起伏)、생산(4월이후 微騰)등을 보면 경기가 重患者의 회복기처럼 불안하다。특히 물가를보면 올해야말로 목표달성이 되겠지마는 金利의2重구조심화、환율、부동산투기등 伏兵이 도사리고있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현재 늘어나고있는 부동산투기를 경기부양을 의식하여 방치한다면는 78년의 惡夢이 재연될수도있다。미국、일본、서독、프랑스등 우리나라 무역의존도의 60%를 차지하고있는 先進國들이 아직 불황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있다。

日本과 西獨은 수상이 경질되었다。불황이 한몫을 한것이다。

다행히 미국은 연방준비은행(FRB)이 긴축통화정책을 완화、금리가 또다시 떨어졌다。프라임레이트(우량업체에대한 대출금리)가 13.5%에서 13%내지 12.75%로 떨어졌고 소비자금융인 신형자동차구매 대부금리가 18.5%에서 17%、주택개량자금 금리가 19%에서 17.5%로떨어졌다。뉴욕증권시장에서는 거래가 폭발、지난2개월사이에 다우·존스지수가 2백포인트이상 올랐다。꿈쩍않던 경기가 부상할 여건이 조성되었다。희미하나마 [illegible]다。

우리의 경제정책목표가 低물가의 정책에있다면 成長보다는 安定을 내세워야 할것이다。서투른 독자적인 경기진작대책은 물가만을 부채질할수 있을것이다。

뉴스診斷

李梓昇 特輯部長대우

Special Off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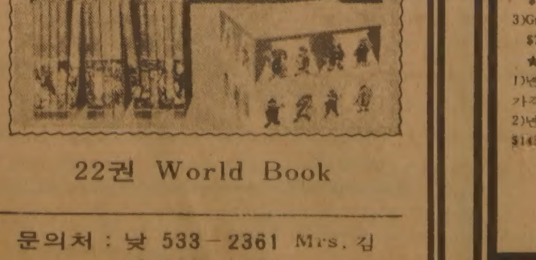
WORLD BOOK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22권 World Book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VARIETY STORE

주매상 $7,000, Rent $2,350, 4년, 5년옵션, 가격 $75,000

주매상 $11,000, Rent $1,149, 3년, 10년옵션, 가격 $155,000

주매상 $14,000, Rent $3,707, 7년, 10년옵션, 가격 $225,000

주매상 $5,500, Rent $1,970, 1년, 8년, 5년옵션, Asking $50,000

★상용건물

1)Bloor 한인상가에 위치한 4 Bedroom 아파트와 1000SQF되는 새로 단장된 빈 상점이며, 한인을 위한 사업장소로 최적, $55,000 다운, Asking $142,500

2)Dry Cleaning 상점이 있는 대형 3 Bedroom달린 벽돌건물 사업과 함께 매도, 빌딩 가격 $170,000.

★상용건물과 VARIETY

1)Variety 주매상 $7,000 1Bedroom 아파트4채, $200,000 다운, 가격 $430,000(건물+사업)

2)Variety 주매상 $11,000 1Bedroom 아파트5채 $150,000 다운, 가격 $400,000(건물+사업)

3)Grocery 주매상 $6,000 2 Bedroom 아파트2채, $70,000 다운, $255,000(건물+사업)

★TAVERN과 식당

1)년매상 $1,000,000, Rent $3,500, 3년, 10년옵션, $100,000 다운, 가격 $350,000(Building도 따로 팔수 있음)

2)년매상 $260,000, Rent $1,575, 1년, 5년유선, $50,000 다운, 가격 $145,000

★BAKERY

Hunts Bakery: Shopping Center내에 새로 Open, 매상이 날로 증가, $40,000 다운, 가격 $135,000

★DRY CLEANING

년매상 $55,000, Rent $1,100, 5년+5년, 가격 $40,000

★DONUTS SHOP

1)주매상 $7,000, Rent $3,400, 4년, 15년옵션, 월 $5,000 Net로 과외수입 있음, 가격 $270,000

2)주매상 $8,000, Rent $2,500, 4년, 10년옵션, $150,000 다운, Asking $330,000

3)주6일(일요일 난음), 하루12시간만 하는 Donut Shop, 년순수익 약 $50,000, 가격 $125,000

★SHOPPING M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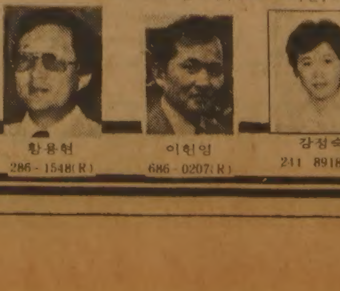
1)Smoke & Gift Shop 6개월전 Open, 주매상 $4,000, 가격 $55,000

2)Gift Shop및 Hobby Claft Shop 몇개 있음.

★주택 1)Scarboro 방갈로, 4 Bedroom 지하실이 잘 꾸며짐, Fire Place, Sauna, Wet Bar, 가격 $124,900

2)고급주택 $100,000 $120,000 $150,000 $200,000 $250,000

※이 좋은 조건으로 North York, Don Mill 에리아에 많이 있으니 문의바랍니다.



황용현 286－1548(R)　이헌일 686－0207(R)　강정숙 241－8918(R)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SUITE G5 DON MILLS

TEL(416)449－8644～5(B)·286－1548(R) M3B 1Z3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의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보험 세타 스토레이지(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밍크의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363－6077

Mrs. 전

英語시간 빼내 日語교육

大入학력考査 성적 높이려 일부高校서 법정시간 어겨

사립名門선 아예 日語班설치

대입학력고사를 앞두고 일부 고등학교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면서 문교부가 정한 법정이수단위 시간을 어기고 제멋대로 특정과목만을 편중교육시키고 있어 말썽이다.

이같은 편법이 나온것은 대입학력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생긴것인데 학교에 따라서는 6개 외국어과목중 일본어만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있다는 것. 이때문에 최근 대입학력고사응시에서 외국어선택과목중 일본어가 82학년도의 5·7%에서 3배가 넘는 17·3%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14일 대입학력고사에서 일본어선택의 편중화를 막고 고등학교의 외국어 교육을 정상화시키기위해 일선고등학교에서 외국어과목의 법정이수단위를 철저히 지키도록 장학지도를 펴나가라고 전국각시·도교위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법정이수단위를 어기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학교장을 엄중문책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법정이수(履修)단위는 고등학교 교육에서 全人교육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교육과정령」에 의해 특정과목 교육에 치우치지않도록 규정해 놓은것으로 고등학교 3년간 총이수단위는 2백16~2백34인데 이중영어는 20~24이고 일본어 독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는 10~12이다.

그러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외국어과목중 법정이수단위(20~24)에 의해 3년간 주당 평균4시간씩 교육시켜야할 영어과목을 줄이고, 그시간을 주당 2시간을넘어서지 못하도록돼있는 일본어에 별도로 추가배정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일본어 집중교육풍조는 특히대학의 합격자를많이내고있는 이른바 사립명문고등학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학교에서는 아예일본어반을따로설치, 영어는 제쳐두고 일본어만을 가르치거나 학생들에게 일본어만을 공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실정이다.

일선고등학교가 일본어에 중점을 두는이유는 대입학력고사에서 점수비중이 가장높은 외국어과목이 영어 일본어등 6개과목에서 택일하도록 되어있는 제도적모순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일본어의 경우 高3학년1년동안만 집중적으로 교육시켜도 6년또는 3년동안배운 영어나 불어등에비해 득점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측에서도 일어를 권장하는곳이 많으며 학생들도 쉽게 선택하는 경향이 짙다.

한편 문교부는 대입학력고사에서 일본어를선택한 지원자가 영문과등 타계 어문학과에 들어가는 모순을없애기위해 어문계학과와 자연계의 물리 생물 지리 화학과의 경우는 선택과목에서 동일계과목을 선택하는 지원자만응시가가능하도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

保險料징수율 激減

木浦市醫保 월평균 40%線 불과

【木浦】전남 木浦市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징수실적이 계속 떨어지는것으로 나타났다.

14일 市의료보험조합에 따르면 제2종 의료보험지역으로 지정된후 지난7월부터 9월말까지 부과한보험료는 모두 4억2천6백15만원인데 징수액은 40%인 1억6천8백67원에 불과하다는 것.

7월의 경우 1억6천4백27만원(3만3백60건) 부과에 9천1백11만원(1만6천3백70건)이 징수돼 55·5%의 징수율을 보였고 8월분은 1억3천3백59만9천원(2만9천3백47건)에 7천1백80만원(1만6천3백70건)으로 53·8%, 9월분은 1억2천8백28만9천원(2만8천1백87건)에 5백76만4천원(1천4백24건)으로 4·5%의 징수실적을 각각 보였다.

조합측은 이같이 의료보험료 징수실적이 떨어지자 다음달 10일까지 징수토록 규정돼있지만 징수규정에 관계없이 납기를 무기한 연장해주고 있다.

이에따라 조합은 각의료기관및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 29억4천여만원중 9천3백26만6천6백원만 지급한것으로 알려졌다.

조합관계자는 이에대해 피보험자중 일부가 무단퇴거해 버리거나 행방불명된자가 많기도 하지만 아직도 일부 시민들이 제2종보험제도 자체에호응을 않고있기 때문이라면서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중앙으로부터 전면적인 재검토가 뒤따라야할것같다고 말했다. 【翰】

쌍화차 工場서 끓는 물에 火傷

【李鍾九기자】 14일상오10시께 경기南楊州郡九里邑水澤里505 인삼차제조업체인 주식회사 一和의 쌍화탕제조공장에서 이회사 생산부직원 權혁신씨(47·경기南楊州郡九里邑水澤里563의16)가 끓는물에 가성소다를 넣다가 넘치는바람에 전신에 화상을 입고 성바오로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태다.

權씨는 이날 통일교의합동결혼식 관계로 회사가 휴무인것을 이용,쌍화탕 원심분리기에서 찌꺼기를 닦아내기위해 15ℓ들이 양동이에 물을 끓여 세제로 쓰이는 가성소다를 붓다가 물이 끓어넘치면서 전신에 튀어 변을당했다.

상습賃金체불 봉제下請업자 拘束

노동부 서울北部지방사무소는 14일 成光실업대표 李光鎬씨(30·서울恩平區應岩洞588의14)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소규모봉제하청업을 경영해온 李씨는 지난6월 趙明淑양(18·서울道峰區彌阿3洞234의16)등 종업원12명의 임금4백39만2천원을 지급치 않고 달아난후 다시 서울道峰區彌阿3洞에 成光실업이란 회사를 설립, 경영하면서 종업원30명의 7~9월분 임금8백5만3천원과 해고수당을 한푼도지급치않는등 모두 1천6백3만4천원을 체불한채 행방을 감춰왔다는 것이다.

夫婦싸움끝에 放火 셋방父子 燒死

【光州】속보=光州경찰서는 14일 부인과 시비끝에 자기집에 불을질러 세들어살던 부자를 불에타숨지게한 鄭良勉씨(48·光州시西區月山3洞291의31)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鄭씨는 13일밤 자정께 자기집안방에서 부인 林모여인(46)과 시비끝에 집에방화한뒤 집을나가버려 전날밤에 세들어살던尹永玉씨(32)와 아들 京宗군(6)이 불에타 숨졌다.

전천후高速경비정 1천톤급 준공

【부산=張鎭哲기자】 부산해양경찰대는 14일하오3시 부산해경전용부두에서 국내에선 두번째로 1천톤급 전천후고속경비정의 준공식및 취역식을 가졌다.

盧泰愚내무장관은 이날 치사를 통해 「삼면이 바다인우리나라의 특수여건아래 지금은그어느때보다해상치안의안보의무가 막중하다」고 전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개최에 따른 북괴의 대남방해공작으로 예상되는 해상침투에대비, 해상경계를 철저히해야 할것』이라고 영해수호에 최선을 다해줄것을당부했다.

이번에 준공된 전천후고속경비함정은 길이81·5m, 폭9·8m로 60억원을들여 현대중공업에서 순수한 우리기술진으로 건조됐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영해경비와 원해어선보호및 해상범죄를 단속하게된다.

30개 보통列車폐지 철도청, 내년에계획

철도청은 14일 국회교체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내년에 8개 보통열차를 특급으로승격시키고 84년에는 30개보통열차를 폐지하는등 완행열차를 대폭 감축하며, 적자선인 安城線은 83년에 폐선하고 沃溝,泗川,和順線은 전용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史上최대 6천쌍 合同결혼

83개국 統一敎會신도 모여 어제 잠실체육관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합동 결혼식이 14일상오 10시30분 서울 江東區 잠실 종합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됐다.

이결혼식에는 세계 83국에서 모여든 6천여쌍의 교도들이 동교회 의식에 따라 백년가약을 맺었다. (사진)

이 국제합동결혼식의 신랑신부는 한국 1천2백쌍, 日本 3천8백쌍, 유럽지역 5백쌍, 미국 1백50쌍, 중남미 1백쌍, 동남아 90쌍, 아프리카 60쌍으로 모두 1만2천여명.

이들은 文鮮明목사의 주례로 聖水세례를 받으며 입장해 결혼서약, 금반지 교환, 결혼후 폭력을 쓰지않을것을 맹세하는 탕감봉행식등을 치르고 버스에 분승해 漢江강변도로를 도는것으로 신혼여행을 대신했다.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정부糧穀貸與 외면 상환條件 시기나빠 慶北道

【龜尾】 경북도는 지난 가뭄때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대여키로했으나 상환조건과 시기가 나빠 호응을 받지못하고 있다.

14일 龜尾시에 따르면 경지면적 1ha미만 농가가운데 50%의 감수가 예상되는 한해농가를 대상으로 대여곡 희망여부를 조사한결과 단한가구도 희망하지 않았다는것이다. 【翰】

어린이 넷 救하고 農夫가 殺身成仁

梁山川 지나다

【釜山】13일 낮 12시45분께 경남梁山郡梁山邑新基里 梁山川앞길을 지나던 李영섭씨(41·농업·경남梁山郡梁山邑新基里103)가 수심 3m의 하천에서 이웃 李석진(10·梁山국교3년), 金해우(10·〃), 朴근형(14·梁山중1년), 金해균군(12·梁山국교5년)등 4명이 익사직전에 있는것을 발견, 강물에 뛰어들어 4명을구출하고 자신은 힘이 빠져 헤엄쳐 나오지 못하고 익사했다.

이날 李석진군과 金해우군은 타이어와 판자로 보트를 만들어 놀다 보트가 뒤집혀 물에 빠졌는데 朴근형군과 金해균군은 부근에서 놀다사고를 목격, 이들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수영이 익숙치못해함께 변을당할뻔 했다.

5行뉴스

◆오늘 民防衛훈련 10월 민방위날훈련이 15일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있는 경남의 馬山·晋州·鎭海·昌原등 4개시를제외한 전국에서 실시된다.

이름 竊盜당해 「被疑者」1년5월

폭행범이 他人행세 억울한 「代理재판」

大法院, 공소기각 결정

폭행피의자가 남의 이름으로 조사를받고 풀려나는바람에 검찰이 이름을 도용당한 엉뚱한 사람을 기소, 1년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부(주심 全尙錫대법원판사)는 14일 姜幸信피고인(24·전남順天市韓龍洞319)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과는 다른 사람인 강창호에 대한 것인데 강창호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했기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을 강창호로 오인하여 공소를 제기한것으로 이 사건공소장 기재로는 강창호를 특정지을수 없다』고 판시, 공소기각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사건진범인 강창호(21)는 지난해 3월27일 밤11시 40분께 서울鍾路區觀水洞 서울극장앞길에서 택시를 먼저타려다 시비끝에 택시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鍾路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서 강씨는 잘아는 고향사람인 「姜幸信씨」로행세하며 『본적과 주거는 順天市韓龍洞319·직업 양복공·성명 「姜在信」·생년월일 61년1월22일생·20세·주민등록번호610122-1』로 진술했다.

한자(漢字)이름을 잘못알고 幸를 在로썼고 주민등록번호를 완전히 진술하지못했을뿐 철저히 姜幸信씨로행세한것이다.

이에따라 「姜在信」은 서울지검에서 불구속으로 약식기소돼 서울형사지법에서 벌금10만원을 선고 받았다.

난데없는 약식명령서를 받게된 姜씨는 서울형사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 법정에서 『잘아는 사이인 강창호가 내이름으로 조사를 받은것같으며 강창호는 다른 폭력사건으로 구속되어 光州교도소에 수감돼있다』고주장했고 증인으로 소환된 강창호도 이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

따라서 이사건1심인 서울형사지법 단독심은 姜幸信씨에대해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하고 나서는바람에 「억울한재판」은 대법원에까지 가게됐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강창호가 姜在信행세를 하면서도 조서말미에는 강창호라고 자기본명을 서명했고▲수사자료카드에도 피고인의 성명이 「강재신(일명강창호)」이라고 기재돼있으며▲생년월일도 강재신이 강창호자신의 생년월일을 댔고▲「재」한의 자표시가 실지인물인姜幸信과는 다르다는점을 들어 『이사건 공소장기재에 나타난 강재신은 실재인물姜幸信이아닌 강창호를 가리키는것이다』고 주장한것.

이때문에 억울한 姜幸信씨는 검찰도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상태에서비록 불구속입망정 「강창호 대리재판」을 받아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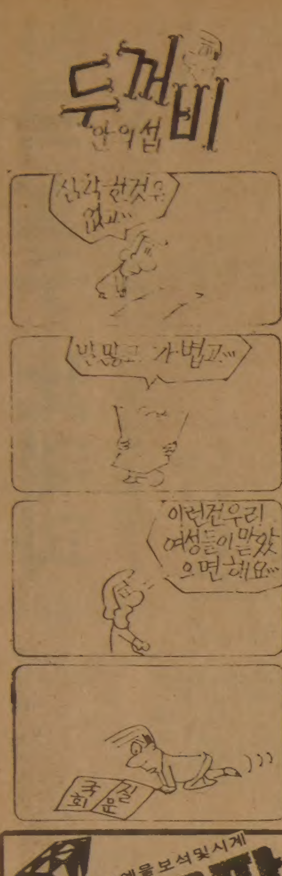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할 피고인의 성명은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할 그피고인 고유의 성명을 기재해야하는것은 아니며 또 그성명기재가 잘못됐더라도 본적, 주소, 생년월일, 직업또는 인상·체격을 기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등 피고인을 특정할수있는정도이면 된다』고 규정돼있어 검찰의 주장이 「위법」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공소장 기재내용이 「엉뚱한진찰」이라서 도저히 강창호에대한 공소제기로 볼수없다고 판단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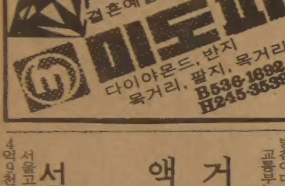
결국 경찰의 실수에 검찰의 고집이 겹쳐 억울한 姜幸信씨만 재판을 받아온것이다.

법조계 "眞犯아닌줄 알면서起訴" 비난

이와관련, 법조계에서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진범이 아님을 알면서도 「무리한 추상」을 펴며 공소취소를 하지않고 항소를 계속한 검사의 처사를 비난하고있다.

서울통합변호사회의한변호사는 『약식기소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기록으로만 이루어지기때문에 실수가 있을수 있다고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알았다면 실수를 바로인정하고 항소를 즉시취소, 진범에 대해 새로 공소를제기했어야 한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택시 39%로 확대

내년 事業用차량 1만3천대 증차

교통부는 서울·부산을비롯한대도시교통난해소를위해 내년중에사업용차량1만3천7백대를 증차하고 개인택시를 전체택시의 39%로 확대하는 한편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확대하고 노선도 정비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14일 국회에제출한 업무현황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시택시의 시한철폐는 불가능하며 이들의 전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는 또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가입차량에 대한 책임보험가입의 면제방안을 검토중이며 택시운전사월급제실시를위한 노사간의 협의는 서울의경우 2백61개업체중 2백56개업체가 이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보고는 지난 80년11월15일부터 82년8월31일까지의 교통불편신고센터운영결과 이기간중 총5만2천2백74건의 신고를 받았고 이중 시내버스가 2만8백8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시외버스 9천7백67건 철도 7천7백11건 택시 4천14건등의 순으로 불편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고내용중에는 불친절이 26%, 과속난폭운전이 18%, 연발착11%, 정차불이행이 10%로 나타났다.

서울大 開校 36周

서울大는 14일상오 冠岳캠퍼스 노천강당에서 교직원·학생대표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36주년기념식을 가졌다.

權彝赫총장은 기념사에서 『서울大가 36년동안 걸어온 길은 조국이 그러했듯이 어려운일을 슬기롭게 극복한 것』이라고 말하고 『대학은 모든것이 학문에서 출발, 학문에서 마무리되어야하며 모든것을 학문의 측면에서 생각하고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高法 「4억9천만원」에 2백만원 지급판결

거액手票주워 돌려줘도 액면금액 기준보상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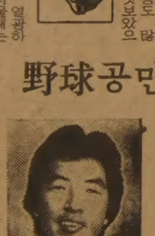
서울고법 민사11부는 14일 4억9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주워 주인인 起亞산업에 돌려준 張京浩씨(서울冠岳區新林洞411의8)가 起亞산업을 상대로낸 보상금청구소송에서 『거액수표는 습득자가 바로 사용하거나 현금화할수없기때문에 분실된수표를 찾아주어도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을수없다』고 밝히고 『起亞산업은 張씨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張씨는 지난해9월19일 하오2시께 明洞입구에서 起亞산업발행의 4억9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주워 起亞산업에 반환했는데 起亞산업이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자 『유실물법(습득물가액의5~20%)대로 12%인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실물법에 정한 물건 가액이란 수표의경우 단순히 액면금액을 가리키는것이 아니라 수표가 남의손에 들어감으로써 주인이 입을지도 모를 객관적위험도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판시했다.

不運

滿壘홈런 2發에 운 李善熙 투수



끼니도 잊은채 野球공만 만져…

프로야구 개막전과 마지막경기에서 만루홈런을맞은 불운의 투수 李善熙선수(27·사진)를 취재하려가는 기자의 어깨는 무거웠다. 『만나주기나 할까』하는 걱정이 앞섰다. 기우가 아니었다.

李선수의 왼쪽어깨는 역시 축처져있었다. 악몽의 그순간후 한끼도 들지않고 방에서 야구공만 만지다 나왔다는 그의 얼굴은 핼쑥하기만했다.

경북중고, 농협, 浦鐵 그리고 국가대표선수까지 15년간 우승도 많이하고 패전의 쓰라림도 맛보았으나 그때처럼 가슴이 아프고 열광하는 관중이 그렇게 원망스러울때는 없었다는 고백.

9회초 OB의공격. 데드볼로 만루를 이루고 또 포볼로 밀어내기결승점을 준뒤 맞은 타자는 한창 상승세를 타고있는 金裕東선수였다.

이미 2회에 솔로홈런을 맞아 꺼림칙한 상태였으나 카운트를 유리하게 이끌기위해 직구를 던졌다.

「딱」 소리가 나는 순간 「아차」 싶었다.

개막전에서 청룡의 李鍾道선수에게 역전만루홈런을 맞던 악몽의 순간이 머리를 스쳤다. 외야스탠드를 향해 뻗어나가는 볼은 힐훨날랐다. 그순간이 자기가태어나 살아온 27년만큼이나 긴 것같이 느껴졌다.

「딱」 소리로 프로야구元年의선수권을 쥐고 기뻐하는 OB선수를 뒤로하고 야구장을 나서려니 눈물이 앞을가려 걸을수가 없었다. 할수없이 불펜에 주그리고 앉아 아이처럼 흐쩍거렸다.

사실 李선수는 마지막경기가된 6차전을 자원했으나 5게임중4게임에 출전, 몹시 피로해 있었다. 5회부터는 정신력으로 버텼으나 1백45g밖에 되지않는 공이 천근처럼 무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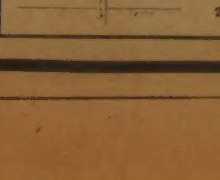
7회부터는 노골적으로 벤치를힐끔거리기도 했다.

프로야구 첫해에 「불운의 사나이」란 칭호를얻은 그는 그동안 자신을 반성, 정신적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앞으로 산악훈련등을통해 체력을 보강하는 한편 禪을통해 마음의 자세를 보다 가다듬어야 하겠다는 그의 결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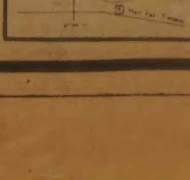
『내년에는 금년처럼 세여자(부인白貞順씨와 두딸)를 울리지 않을것입니다. 내년엔 행운의 사나이가 되겠읍니다』 그의말처럼 내년에는 마운드에서 두손을 처들고 승리의 눈물을 흘리는 李善熙선수를 보게될까. 【宋大洙기자】

10월16일~11월14일(일)
(한달간)
울며겨자먹기세일

저희 식품점(서울 서부식품이나 해밀톤 서울식품)에서 100불이상 물건을 사실 경우에는, 30불 현금을 즉석에서 내어 드립니다. (특별원가제공품목은제외)



서부·서울식품
1391 WESTON RD.
☎ 243 9544



해밀톤·서울식품
128 BRUCEDALE AVE. E.
☎ 1 385 1485

극심한 생존경쟁을 뚫고 나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금번 해밀톤 서울식품을 OPEN 함과(10월15일) 동시에 1달동안 최대의 세일을 실시코자 하오니 적극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인조 올림

특별원가제공품목

쌀, 배추, 무우, 불고기, 갈비, 조기, 오징어, 보리차, 강냉이차, 메주가루, 북어포, 엿기름가루, 한국산 자연굴 (인공생산이아님), 냉면 (2인분)

	Spe.	Reg.
⊙조기 1 BOX(중, 대)	$48.95	$52.50
⊙물오징어 1 BOX 22 Lb. (대)	$22.95	$23.95

배 추 5 BOX 사실 경우 (1 BOX Free)
무 5 푸대 (1 푸대 Free)
● 서너집에서 묶어서 구입가능 합니다.
● 배추, 무우 5 BOX 사시는 분께 굴 1~2Lb. 선착순으로 드립니다.

건강食品 ⑱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는 강렬한 태양이 이글거리는 8·9월에 정열적으로 꽃을 피우는데, 영어로는 선플라워, 한방으로는 향일규(向日葵)라고한다。

이 해바라기씨는 풍부한 영양이 있어 비상시에 대비한 저장식품으로 귀중한것이며 지금은 건강식품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있다。

쌀이나 콩처럼 쪄거나 볶을 필요도 없으며 껍질도 간단하게 벗길수가 있다。

야생종·관상용종·재배종의 세가지가있는데, 관상용종은 재배종과 비슷하나 씨앗이 작고 지방함량이 적다。재배종에는 미국종과 러시아종이있다。미국종은 키가 크고 씨앗이 큰 만생종인데 흑색종과 백색종이있다。

러시아종은 키가 작고 조생종이며 씨앗에 흑색무늬가 있으며 씨앗이 조금 작다。

품종에따라 성분의 차이가 많은데 지방함량이 50%를 넘는것도있다。평균적으로 100g에서 435칼로리나 열량이 나온다。단백질이 8%가량들어있는데 필수아미노산이 많으며 특히 아르기닌이 많다。

전래되는 말로는 시력과 안색을 좋게하고 소변을 곱게한다고한다。고혈압과 신경과민에도 좋다고 하는데 그것은 해바라기씨에 많은칼륨, 칼슘, 철분등의 무기질과 일반곡류가 정제되는 과정에서 상실되기 쉬운 비타민 B복합체가 풍부하며, 지방성분

노이로제·精神病에좋은 燐脂質듬뿍

으로 필수지방산이 많이들어있기때문인것으로 짐작된다。

해바라기씨에는 레시틴이라는 인지질(燐脂質)이 다량함유되어있어 신경조직을 든든하게하므로 노이로제나 정신병에 잘걸리지않게하는 작용도있다。

복잡한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에게 해바라기씨는 건전한 육체뿐아니라 정신건강상에도 매우 긴요한 식품이 되는 셈이다。

섬유상의 특색과는 별도로 씨앗의 상태로 장기간의 보존에 견디어 크게 변질되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볼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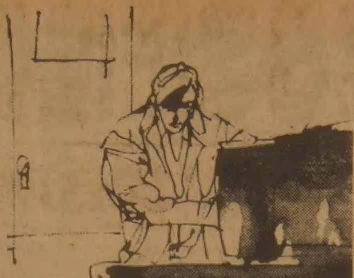
그래서 입부지방에선 고래로 변사들을위한 비상식량으로 이용되어왔던것이다。

해바라기씨는 직접 식용으로 할 뿐아니라 기름을 짜서 샐러드유나 마가린 제조용으로 쓰인다。공한지나 유휴지를 이용해서 한때 재배를 권장하다 지금은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생산이 요망되는 건강식품이다。

劉太鍾 〈高大교수·식품공학회장〉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241〉



안개속의 집⑧

돈이란 써야만 맛이 아니었다。돈이 많이 있어서 시큰둥하니 무관심 할 수 있는맛 역시 나쁘지 않았다。그가 아말로 사람다운 줄위였다。기욱은 자기수입에 식구들의 밥줄이 매달린 생쥐이란 상상만으로 두렵고 혐오스러웠다。그는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면서 아둥바둥 하지않고 풍위있게 사는게 몸에 배어 있었다。아버지 대신 아내가 그런 생활을 보장해 준대도 나빨건 없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들 부부 사이는 나빠지기 시작했다。겉으로 보기엔 여전했지만 속엔 이미 그들이 사랑이라고 믿을 수 있는것이 남아있지 않았다。그들은 자기들에게만 그게 없다는 게 참을 수가 없어서 세상 어디에고 그런 게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하려 들었다。

기욱은 돈 많은 아내를 감쪽같이 속여 없애기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는 비정한 남자 이야기를 텔레비전 외화시간에 보기를 즐겼다。그러나자야말로 그가 은밀히 섬기는 영웅이었고, 그의 또다른 얼굴이었다。

그렇다고해서 그가 한번이라도 수지를 없앨 궁리를 구체적으로 해본 건 아니었다。그는 황금박쥐 만화를 보고 이층에서 몸을 날려보는 어린애가 아니었다。그는 어른이었고 어른중에서도 비열한 어른이었다。

그에겐 돈이 쓰기위해 중요하기보다는 그게 많이 있다는 느긋한 여유를 위해 중요하듯이 이 세상엔 아내를 죽여없애기를 꿈꾸는 남편과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충만해 있다고 믿고 의지하는 게 중요했다。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에 그런 방법을 구태여 연구할 필요가 없었고 써먹기에 급급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어쩌면 아내에 대한 증오조차 남이 대행해주는 것처럼 여김으로써 자신은 점잖게 어느만큼 비켜나 있으려는지도 몰랐다。

『여보, 정치하고 정치적은 다른대두요。겁날것 없어요。어려울 것도 없구요。이를테면…』

수지가 집요하게 그러나 어린애 달래듯이 나긋나긋 하던 얘기를 계속했다。

『이를테면?』

『아까 당신 물었죠? 우리들이 왜 같이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부정해도 우리가 같이 사는 것도 결국은 정치적인 걸요』

『그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당신에겐 내가 필요해요. 사랑때문이라곤 하지 말아요. 내가 돈 있는 여자기 때문에 필요한거 숨기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천성적으로 당신한테 여러 식구 밥줄을 매달고 허덕일 체질이 아니라구요. 그런 궁상과 불안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날걸요. 나 역시 당신이 필요해요. 난 사회적으로 성공도하고 존경도 받고싶지만 가정에서 실패한 여자로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생활을 양립시킴으로써예요. 양손에 떡을 쥐고 말예요. 출세한 남자에게만 아름답고 정숙한 아내가 액세서리가 되란법 없잖아요. 출세한 여자에게도 성실하고 이해성 깊은 남편은 값진 액세서리예요. 이렇게 우린 서로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적이라는 거구요』

『제발 입 좀 닥치지못해. 당신이란 여자 정말 지겨운 여자군. 더는 더는 못 참을 것 같아』

기욱이 벌컥 몸을 일으켰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주간女性

한국女子 比대파

亞洲J농구 決勝리그 첫날 101-59

【마닐라=聯合特派員】제7회 아시아 女子농구선수권대회 [illegible] 한국여자팀은 18일 오후의 필리핀을 101-59로 대파, 첫승리를 거두었다。

한국은 19일 상오10시(한국시간)에 불가리아와 첫 대전을 벌인다。한국은 이겨서 이길경우 中共-호주전 승자와 16일 상오10시에

◆결승리그 첫날

▲여자부

한국 101 (39-62 / 33-26) 59 필리핀
(1승) (1패)

▲남자십위리그

중공 92-56 태국
(3승) (3패)

말레이 91-74 일본
(3승) (3패)

한국·불가리아 오늘5~8位戰

세계男子배구

제10회 세계남자배구 선수권대회 준결승토너먼트에 진출한 한국팀은 15일 상오10시 5·6위전을 벌이며 불가리아에 패할경우 中共-쿠바전 패자와 16일상오8시에 7·8위전을 갖게 된다。

漢陽大·방콕銀行 준결승戰 두차례

泰퀸즈컵 축구

【방콕=安泰煥特派員】제12회 퀸즈컵축구대회 준결승전에 오른 漢陽大팀은 15일하오9시10분(이하한국시간)과 17일하오7시30분에 방콕은행과 두차례 준결승전을갖는다。

또다른 준결승전에 오른라즈프라차와 泰國공군팀도 2차전을 벌이게되는데 준결승전에서 이긴팀끼리 20일하오9시에 결승전을, 패한팀끼리 결승전에 앞서 3·4위전을 벌인다。

◇준결승1·2차전대진일정

▲15일=라즈프라차-태국공군(7시반) 한양대-방콕은행(9시10분) ▲17일=한양대-방콕은행(7시반) 라즈프라차-태국공군(9시10분)

밀어내기로 決勝點

세인트루이스 1勝 월드시리즈 2次戰

【세인트루이스14日AP·聯合】세인트루이스·카디널즈는 14일 홈구장에서 벌어진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8회말 핀치·히터 스티브·브라운이 밀어내기 포볼을 골라 결승타점을 올려 5-4로역전신승, 밀워키·브루어즈와 같은 1승1패를 마크했다。

3차전은 16일 상오 밀워키의 카운티구장으로 옮겨벌어진다。

◇2차전

밀워키 (1승1패) 012 010 000 — 5
세인트루이스 (1승1패) 002 002 01× — 4

▲홈런=사이먼(밀워키) ▲안타=밀워키10-8세인트루이스 ▲관중=53,723명

「無敵 趙治勳」 秀哉杯도 차지

名人戰선 타이틀방어 무난할듯

라이벌 차례로 꺾어

[illegible] 趙名人은 시즈오까현 이즈나가오까에서 열린 이 대국에서 진흙으로 2백39수만에 불계승을 거두었다。[illegible] 日本바둑계의 제1인자임을 과시하고 있다。

아직 그의 타이틀방어는 확정적인것은 아니나 전문가들은 「기적」이 없는한 그는 名人位를 지킬것으로 보고있는데 「그렇게되면 그는 금년중 자기의 타이틀을 하나도 잃지않게 된다。

趙名人은 이것으로 만족하지않고 최근엔 신설된 제1회 秀哉杯쟁탈전에서 우승을 거두었다。日本棋院이 출판사인 平凡社의 후원과 파이어니어·레코드의 협찬을얻어 주최한 이 棋戰에는 趙名人외에 그의 라이벌이라는 小林光一9단과 大竹英雄9단을 비롯하여 加藤正夫9단, 林海峯9단, 石田芳夫9단, 武宮正樹9단, 工藤紀夫9단등 日本棋界의 실력자 8명이 참가했다。

趙名人은 여기서 石田9단과 林海峯9단을 차례로 꺾고 결승에서 小林9단을 제압했다。

이 棋戰은 TV에 영상으로 나타나는 레코드 「레이저디스크」에 기보를 실어 實戰圍碁講座「秀哉戰」(全5卷)으로 나오게된다。

趙治勳名人은 또 제8기天元戰에도 도전자 준결승전에 올라있어 어쩌면 타이틀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우선 그의 名人타이틀을 노리는 도전자 오오다께(大竹英雄)碁聖과 지난 29·30양일간 열린 도전 제3국에서 승리함으로써 3승무패로 오오다께9단을 절벽[illegible]

日本新聞협회가 주최로 열리는 이 기전은 그 규모면에있어 日本棋院의 5번째로큰것으로 현재 타이틀은 가또(加藤正夫)9단이 보유하고있다。

趙名人은 준결승에서 片岡聰7단과 맞붙게되며 여기서 이기면 이미 결승에 올라있는 東野弘昭9단과 도전권을 다투게된다。이들은 비교적 이름이 알려지지않은 기사들이나 고바야시9단, 후지사와9단, 林海峯9단, 오오다께9단등 日本바둑계의 실력자들이 모두 출전한 토너먼트의 가파른 사다리를 올라왔다는 점에서 日本바둑실력의 두께를 보여준셈이다。

日本棋界 최고의 타이틀보유자들이 받는 이 대결은 단순한 鶴聖戰우승의 상배보다도 후지사와 9단이 보유하고있는 棋聖타이틀이 위협받고있다는점에서 주목을 끌고있다。오래전부터 일본바둑계에서는 「만일 趙治勳名人이 도전권을 따내면 후지사와 棋聖도 못해볼것이다」는 추측을 하고있는데 이번대국은 그것을 입증한듯한 느낌을 주었기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속에 요미우리신문이 주최한 제7기 棋聖戰最高棋士결정전은 지난달 28일 시작되었다。10명의 기사들이 참가한 이 토너먼트에서 趙名人은 羽根泰正9단과 牛之浜撮雄9단의 승자와 맞붙어 여기서 이기면 林海峯9단對 石田芳夫9단의 승자와 준결승을 벌이며 또 이기면 도전자결정 3번승부를 갖게된다。

鶴聖戰서 藤澤棋聖에 不計勝

소년 棋士趙善津군 안또門下에 입문

李相澈、名人戰서 河燦錫이겨

바둑소식

棋界추측 입증시켜

○…日本에서 가장많은 타이틀을 보유한 趙治勳4관왕과 日本최대의 타이틀을 보유한 후지사와(藤澤秀行)棋聖이 맞붙어 趙名人이 이겼다。두 기사는 제5기 鶴聖戰 청국에서 맞붙었는데 흑을쥔 趙名人은 171수만에 불[illegible]

百98수만에 불계승

○…7일 열린 제14기名人戰본선 제3국에서 李相澈4단은 河燦錫7단을 맞아 白을쥐고 1백98수만에 불계승을 거두었다。

"趙名人 뒤이을터"

○…『趙治勳의 뒤를 잇겠다』는 소년기사 趙善津군(12)이 지난8일 尹奇鉉8단과 함께 渡日했다。

趙군은 [illegible] 日本기원의 안또 6단집에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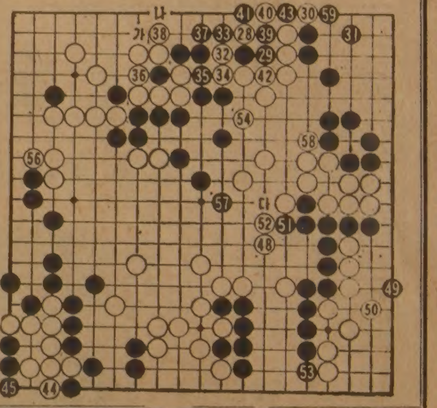
한달에 10여對局

○…제22기 最高位戰본선토너먼트 패자조에서 우승한 徐奉洙7단과 5일 승자조우승자인 張秀英6단과 제14국(결승전)을 가져 181수만에 黑불계승을거두었다。두대국자는 14일 최종결승전을 가졌다。

徐7단은 또 제26기國手戰본선에도 徐能旭6단과 동률인 5승1패를기록, 우승결정전을 갖게됐다。

11일 열린 國手戰본선제21국에서 4승1패의 徐奉洙7단은 黑을들고, 5승의 徐能旭6단을 물리쳐 동률인 5승1패를기록, 재대결을 갖게 됐는데 바둑계인사들은 徐7단이 이처럼 도전권을 따내는데도 허덕이고있는것은 한달에 10여국의 대전을 가짐으로써 너무피곤하기 때문이라고。【梁平기자】

名人戰 第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1局 第9譜 128~159 (각5시간·덤5집반)

白 (6段) 徐能旭
黑 (4段) 姜勳

黑勝은 결정적

상변을 白28로 껴붙인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이때 黑이 29로 젖어넣은것은 얼핏보기에 자살행위 같은 수단이지만 실상은 상대를 유도하려는 복선。徐6단이 좀더 냉정하게 살렸더라면 白32로 끼우지 않고 순순히 39자리를 이어두었을 것이다。

白32는 걸려든수 라기보다 다음 白34때 黑35를 거쳐 37로잇는 수를 착각했다고 보아야 옳다。黑37다음 白이 손을 빼면 黑38로 젖히고 白「가」에는 계속 黑「나」로 젖혀잇는 것이 선수다。

따라서 白38이 불가피하여 결과적으로 黑의 계략에 빠져버린 격이고 대세도 이로인해 黑을 편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또白40、42가 굵어부스럼, 차라리 손을빼느니만도 못했다。하기야 白30이하의 과정에서 착각을범한 때문에 오기가 불쑥 솟아 공연한손찌검을 하고싶었을것이지만 이로써 심적동요를 나타낸것은 사실。이뒤에도 조급한수를 연발하게된다。

黑51에 대한白52도 부질없는 저항이었다。이수로는 억울하지만「다」자리에 늦춰놓고 서서히 찬스를 기다려야했다고 국후평은 徐6단을 위하여 못내 아쉬워하고 있었다。그런노릇이 53로젖힌 때문에 白54、58등 거의 공배같은수가 필요했고 상변의 패싸움도 黑이59로 해소하여 승리를 굳혀버린 때문이다。46…40。47…28。55…43。【一凡】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장의사〉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Richard Y. K Wong Insurance Broker

보 험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상업(가게·레스토랑등)전문

312 DUNDAS ST. W. TOR.
(B)977-4057 (H)461-7769
Registered Insurance Broker 리챠드·왕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 김미리자
BAND — 기타 : 신상철
올겐 : 함효상
드럼 : 권순근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이 세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성경강연회

초청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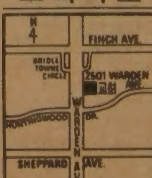
오늘날의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 그리고 사회의 이례적 사태들은 단순히 우연한 일들인가, 아니면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루어져 가고있는 한 단면을 이야기하는가를 함께 생각하고저 한 기간을 마련하였읍니다.

인류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줄달음쳐 가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의 뒤안길에 살고 있는 우리 각자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또 어디에서, 어떻게 그 참다움을 찾을 수 있을런지……

짧은 기간이나마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공통된 관심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바람과 함께 여러분들을 초청하오니 참석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보람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지구는 고장난 비행체이다
인구폭발, 기상이변, 식량위기, 석유파동, 공해, 핵무기의 공포, 대지진등
●성경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창조냐? 진화냐? 내세의 유무, 이적의 가능성등
●쏘련의 이스라엘 침공설은 사실인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인류의 종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인생은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
생의 의미, 죽음, 내적갈등, 구원등의 많은 문제
●거듭(구원)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과연 당신은 들림받을(휴거) 준비가 되어있는가?

교회약도



● WARDEN SUBWAY에서 68번 버스(FINCH행)를 이용하실수 있읍니다.
● 집회기간중 어린이를 돌보아 드립니다.

● 강사 : 소 천 섭 목사(국제선교협의회 사무총장)
● 일시 : 1982년10월21일(목)~26일(화). 저녁 7 시30분부터 (일요일은 오후 2 시부터)
● 장소 : 2501 WARDEN AVE. SCARBOROUGH (BRIDLEWOOD PRESBYTERIAN CHURCH. SHEPPARD와 FINCH 사이)
● 연락처 : 439-1964

기독교복음침례회토론토교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범한서적
◉한국전집류 ◉고전, 현대소설
◉유치원 백과, 새생활 백과사전
◉사전류, 가정요리, 꽃꽂이 ◉광복20년
1712 Queen E. 전화 : 690-2216
북미주총판책임자 최 규 흘

사진

새 하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식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 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 - 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회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전학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펫·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八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534-376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복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D.Y. Import Co. Canada

한국 밑반찬 만드는데 경험이 있는분 구함.
전화 : 622-5379 MRS. 오

Donut Shop에서 주말에 밤일, 낮일 「Part Time」하실 여자분 구함. ★전화는 오전11시 이후
전화 : 282-3553

웨이터, 웨이트레스
18세이상 주말 학생 파타임 구함 (1명)
(목·금·토 저녁에만) 경험 없어도 됨.
114 Laird Dr. 전화 : 421-6016
일본식당(오후 2시30분 이후 연락바람)

식품점에서 일할 Helper 구함.(남자분)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주7일간)
삼복식품 전화 : 743-8270

5년이상 제과기술직에 종사하시던 분을 찾읍니다.
전화 오전9시-4:30사이
749-1822 Mr. Kim

Sales Help wanted (베다스트×로렌스)
현대식 사무실, Leads supplied, parking
Mr. Roy 전화: 789-1241 Louis Roy Ltd., Realtors

출퇴근 하시면서 애들 돌봐 주실분
(베더스트 × 휜치)
전화 : 665-9585

샌드위치숍에서 일하실 카운터 헬퍼구함. ◉주5일. 추레인 시킴. 직접 내방바람.
68 Yonge St. LULU'S CAFE.

웨이트레스 구함(Full Time)
전화 : 532-2727

입주하셔서 집안일 도와주실분
(중국가정임)
전화 : Mrs. Law 493-6190

입주 또는 출·퇴근 하시면서 애기 봐주실분 구함
◉주5일. 스카보로 북쪽.
전화 : 496-1664 Mrs. 리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Grade 7부터 Grade 9까지의 수학·과학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엔지니어가 개인지도 또는 그룹을 지도함.
전화 : 293-3149 Mr. Sam Lee

양장, 재단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 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구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매매

Coffee Shop
주매상 : $4,000(7:00 a.m.~5:00 p.m.주5일 영업)
Rent : $1,575, 리스 : 3년반+5년, 10만불 Down.
good profit, 가격 : $165,000
황용현부동산주식회사
Call : 이헌영 449-8644(B), 686-0207(R)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게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TUCK SHOP(시간 짧고 이윤좋은 가게)
개인사정으로 급매. 주매상: $2,500 아스킹: $25,000+스탁 $15,000다운+모기지 전화 : 275-9507(미시사가)

버라이어티 가게 급매
주매상 : $4,000. 리스: 1년(650불) + 5년
550 Sheppard Ave. W.

★Coffee & Snack Shop(주6일 Open)
Office Building 과 Shopping Mall내에 위치함.
주매상: $10,000. 리스: 4년+5년 옵션
가격: $400,000
★Dry Cleaning Business
고급주택과 Apt.가 밀집한 위치.
주매상 : $7,000. 리스: 9년 가격: $265,000
A.E.Lepage Mrs. Woo(우) 전화 : 741-9170

각종 알로베라제품 판매. 쥬스·크림·로숀·약용크림외 다수품목 보유. 최저 염가 봉사합니다.
5439 Yonge St. 전화 : 222-4717 Mrs. 김

남자옷 맞춤과 남자옷 파는가게 매매
스카보로 플라자:
1년 Sales $200,000
주인이 정년퇴직 관계로 팔고자 함.
전화 : 752-6466 · 491-2573(저녁)

House for Sale
Thornhill에 있는 (Bayview & Willowbrook area)
-5 Bedroom 4 Bathroom 2 Fireplace Hollywood Kitchen Family Rm. Finished Walk - out Basemt & Much more.
-Close to everything(School, Shopping Centre, etc.)
-Asking $199,500
Call Mr. Ivin Savov 889-3329

1981년 덧쥐 벤 추럭(Ram)
6기통. 25,000Km. 가격: $5,800
전화 : (B)622-2643 (R)626-1843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포튜갈 빵가게및 버라어스티가게. 지하실. 2층 아파트 세놓을수 있음 Asking 13만불(권리금+건물) 2만5천불 다운 페이 원함. 1602 Dufferin St. 전화 : 657-1554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오셔서 보시고 문의바랍니다.
전화 : 294-8164

GROSS 캐쉬레지스타 팔고자 함.
관심 있으신분 내방바람
468 Cosburn Ave.(Greenwood & Cox well)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소파 4 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세탁소 매매(pick-up) (Almar Cleaners)
640 Rogers Rd.(At two Block west of Keele)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오샤와 시내 주택가에 위치한 3층 아파트빌딩 좋은 가격에 팝니다. 한달인캄 : $1,200
아스킹 : 11만8천불. 전화 : 293-3515 MIKE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좋은 조건의 가게 싸게 팝니다. 관심있으신 분 직접 내방요. 주매상: $4,000
430 York Blvd., Hamilton(해밀톤)

광고문의 533-2361

여권분실

분실자성명: 전성혜(여) Korea
여권번호: 1152065
연락처: 425-2198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방세 혹은 하숙합니다. 1 Bedroom
Near Dufferin Subway. 여성에 한함.
전화 : 279-2369(R) 533-2361(B) Mrs. 조

집렌트

4 Bed Room House전체를 세놓고자함(Brampton지역)
2 Bath Room, Family Room, Fire Place, 차고등.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593-8943

Flat for Rent(Euclid & Harbord)
$375/M.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사이에 연락바람.
전화 : 977-3758

집세놓음 (4 Bed Rms) mimico area.
중앙식 Air Con . 차고 있음. 교통 매우 편리.
Downtown에서 5분 거리 전화 : 368-9018, 366-0960

단층집(Semi Detaches) 4 Bed Room 세놓음.
Home Bar등 지하실 꾸며져 있음. ($650/M)
스카브로지역(Neilson & Sheppard). 전화 : 968-9450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대환부동산
전화 : 535-1251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세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관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파티·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광고문의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미술연구소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Barrister and Solic 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한국일보 광고문의
☎ : 533-2361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재;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사무용구및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